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9호 【루계 제25162호】 주체105(2016)년 1월 19일 (화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축 하 전 문

지난해 세멘트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에게

나는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백두산대국의 력사에 특기할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일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결사적인 투쟁을 벌려 지난해 세멘트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전체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조선로동당 제1비서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지난해 우리의 군인건설자들과 로동계급, 청년들은 당의 령도밑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과학기술전당과 미래과학자거리,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청천강계단식발전소를 비롯한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전국도처에 일떠세워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며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조석으로 강산이 변하는 위대한 조국번영의 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이 거창한 변혁과 창조물들에는 당의 사상과 의도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백절불굴의 의지로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한t의 세멘트라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의 헌신적인 투쟁을 벌려온 동지들의 불타는 애국충정이 뜨겁게 깃들어있습니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가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백두의 붉은 혁명정신과 자강력제일주의를 필승의 무기로 틀어쥐고 투쟁해나가는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 있는 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고립과 제재, 압박책동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통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영광의 천리길, 만리길만이 펼쳐지게 되리라는 확신을 더해주고있습니다.

나는 동지들이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 이어놓고 당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전례없는 세멘트생산성과로 당의 대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 크게 공헌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 제국주의반동세력은 세계적인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선 우리 공화국의 노도와 같은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최후발악을 하고있습니다.

동지들은 지난해 전투에서 앙양된 기세를 계속 고조시켜 올해에도 더 많은 세멘트를 생산하는 것으로써 혁명을 보위하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나는 동지들이 위대한 장군님을 명예지배인으로 높이 모시고있는 기업소로동계급답게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으로 장쾌한 서막을 올린 올해의 투쟁에서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과 본때를 다시한번 남김없이 떨치며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이 되고 사회주의문명국의 만년미래를 담보하는 주추돌이 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김 정 은

주체105(2016)년 1월 17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에게 보내신 축하전문전달식 진행

【평양 1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온 나라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으로 들끓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았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세멘트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한 기업소의 전체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에게 조선로동당 제1비서의 명의로 된 사랑과 믿음에 넘친 축하전문을 보내주시였다.

조국해방 70돐과 당창건 70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일 불타는 일념을 안고 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은 세멘트의 질을 개선하고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한 위훈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축하전문에는 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이 앙양된 기세를 조금도 늦춤이 없이 계속 혁신, 계속전진함으로써 뜻깊은 올해의 투쟁에서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과 본때를 다시한번 남김없이 떨치리라는 최상의 믿음과 기대가 어리여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난해 세멘트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에게 보내주신 축하전문전달식이 18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전달식에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일군들,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축하전문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가 정중히 전달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진두지휘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위대한 조국번영의 시대에 사는 영예로운 공민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자기들을 높이 평가하시며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만세!》의 함성을 목청껏 터쳐올리였다.

이어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지배인 윤재혁, 소성직장 직장장 한문성, 상원석회석광산 지배인 한영진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축하전문의 구절구절마다에 넘치는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수소탄시험에서 성공한 그 기세로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기업소의 전체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에게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오늘의 이 영광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명예지배인으로 높이 모시고있는 기업소의 로동계급답게 우리 당의 원대한 강성국가건설위업을 받드는 길에서 언제나 전초병이 될 불타는 결의를 피력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세멘트증산의 동음을 더욱 세차게 울리도록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짜고들어 당 제7차대회를 맞는 올해에 또다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함으로써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기어이 보답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려는 우리 당의 구상과 의도를 받들어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고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며 생산과 건설의 국산화, 주체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정책을 무조건 결사관철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내부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기어이 석회석생산을 정상화하며 소성로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세멘트증산의 돌파구를 열어제낄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이 백두의 붉은 혁명정신과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세계적인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선 우리 공화국의 노도와 같은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최후발악을 하고있는 제국주의반동세력의 머리우에 철추를 내리며 증산의 동음을 더욱 세차게 울려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맏아들인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과 본분을 심장에 새기고 견인불발의 의지로 총돌격, 총매진해나감으로써 당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이 되고 사회주의문명국의 천만년미래를 담보하는데서 주추돌, 밑뿌리가 될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전달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와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을 지지하는 모임

로씨야에서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와 우리 공화국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을 지지하는 모임이 10일 로씨야련방공산당 연해변강위원회의 주최로 나호드까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먼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의 주요내용과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이 통보되였다.

이어 발언들이 있었다.

로씨야련방공산당 연해변강위원회 제1비서 웨. 웨. 그리슈꼬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은 조선의 막강한 군사력의 과시인 동시에 조선반도와 세계도처에서 침략과 전쟁을 일삼고있는 미국에 대한 심대한 타격으로 된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년사에서 밝히신바와 같이 조선에서는 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을 최우선과제로 내세우고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된 정세가 필요하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조선의 정당한 평화협정체결제안과 통일방안들을 접수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것이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조선인민이 올해에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

로씨야련방공산당 나호드까시위원회 비서 체르니흐는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와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서 수소탄시험의 장쾌한 뢰성으로 시작을 뗀 올해에 조선인민이 모든 분야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그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선에 아무리 가혹한 적대시정책을 실시하여도 자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 우리는 조선이 하루빨리 통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제10차대회에 축전을 보내였다

비엔티안

라오스인민혁명당 제10차대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라오스인민혁명당 제10차대회를 열렬히 축하하며 대회를 통하여 귀 당의 전체 당원들에게 동지적이며 형제적인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라오스인민혁명당 제10차대회가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민주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귀 당의 활동에서 중요한 계기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깊은 관심속에 날로 좋게 발전하고있는 우리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귀 당 대회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체105(2016)년 1월 18일 평양

정 론

세계는 보게 될것이다

1

지구가 뒤흔들렸다. 세계가 한꺼번에 시선을 돌려 조선을 보고있다. 이는 정의의 뢰성, 이는 평화의 웨침, 이는 승리의 선언—바로 백두산대국이 세계우에 번쩍 솟는 력사의 화산폭발이였다. 민족의 태를 묻어 유구반만년, 이 조선이 세계를 향해 이름떨친이래 이렇듯 감격의 격파가 삼천리에 일고 세계로 뻗친적 있었던가.

무변광대한 우주의 신비함을 다 모아도 비길수 없는 큰 힘이였다. 민심도 수소탄분출이였다. 거대한 핵융합의 폭발력과 같이 순간에 온 나라가 몇천만℃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달아올랐고 그 기세는 이 큰 지구도 모래알처럼 가볍게 여겨질만큼 저 하늘끝에 닿았다. 조선의 수소탄벼락에 얼이 빠진 무리들은 풀숲에 숨어 우는 소리마냥 맥빠진 넉두리만 외우고있다.

이제 무엇으로 더 해볼것이 있겠는가.

이제 이 나라앞에 맞설 상대가 어데 있을텐가.

지난 세기에 있은 한 나라의 수소탄시험은 그 충격파가 무려 지구를 세바퀴나 돌았다고 기록되여있다. 그러나 세계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조선의 수소탄폭음의 위력은 결코 그 물리적세기로만 측정할수 없을것이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승리와 영광의 해 2016년의 장엄한 서막을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열어제낌으로써 온 세계가 주체의 핵강국, 사회주의조선, 위대한 조선로동당을 우러러보게 하라!…

우리 원수님의 이 력사적친필은 수소탄성공의 진짜위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다.

조선의 지위가 단번에 바뀌였다. 로씨야의 한 정치분석가는 《평양이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미싸일을 가지고있는것은 세계적인 세력구도에서 커다란 변화로 된다. 아시아태평양에 힘이 대등한 지역렬강이 출현하게 될것이다.》라고 하였다.

크지 않은 나라이며 가장 엄혹한 시련을 겪고있는 나라가 인류최강의 힘을 쥐고나섰다. 자기의 수천배나 넘는 지구를 단번에 들어올린셈이다. 수소탄보유국들중에 조선은 령토가 제일 작다. 그러나 그 수소탄으로 누가 진짜 악마의 제국을 징벌하고 세계에 정의의 질서를 세울수 있는가. 조선이다! 이런 나라를, 이런 강대한 당과 인민을 왜 우러러보지 않을수 있겠는가.

참으로 좋다. 이런 때를 가리켜 흥하는 세월, 만복이 주렁지는 황금세월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조선은 지금 세계최강의 보검만이 아니라 문명강국의 대전환기를 맞이했다. 수소탄과 문명부흥이라는 쌍마에 오른것이다. 힘도 최고의 힘이다. 문명도 최상의 문명이다. 정의의 핵보검과 문명강국을 더하면 그것이 바로 천하제일강국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당의 병진로선의 승리이다.

과학기술전당은 광명한 미래에로 가는 렬차의 차표를 팔아주는 매표소나 갈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월 1일 이 희한한 전당의 준공테프를 끊으시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는 새해의 첫문을 과학으로 열었다는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남기시였다.

병진의 쌍마를 타고 미래행차표를 뗀 조선, 이런 위대한 나라, 위대한 당과 인민의 양양한 전도와 폭발적인 비약은 력사에 보기 드문것이다.

수소탄은 강국의 억년반석, 문명부흥은 그우에 꽃피울 우리의 꿈이다. 힘을 지닌 우리의 비약은 메가톤급의 속력으로 세계의 눈을 끌고있다. 10년이 1년으로 함축되고 천지개벽의 해가 흐를수록 조국은 그 모습을 완전히 바꾸고있다. 벌써 한두해전이면 아득한 몇십년전처럼 느껴지고 한해사이에 이루어진 사변과 기적만 적자고 해도 가슴이 뻐근하다. 이 천지개벽의 속도는 초음속이고 그 경지는 세기의 격차와 맞먹는 최고의 문명이다. 이것은 수백만분의 1초에 거대한 열핵에네르기를 방출하는 수소탄의 폭발력과 다름바 없다. 세계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수소탄지진과 맞먹는 또 하나의 《조선충격》이다.

다음과 같은 몇가지 측면만으로도 그것은 충분히 말할수 있다.

《진로변경》과 《핵포기》가 없으면 더는 앞날이 없다는 미국식궤변에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가 어두워진 이 세계에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미국과 그 추종세력과 생사의 대결을 치르고있는 나라에서, 유엔의 거수기를 발동한 수차례의 제재결의와 수백페지에 달한다는 제재목록으로 생존공간을 극도로 압박하여 이제는 《붕괴》가 시간문제로 되였다고 생각하던 조선에서 천지개벽이 일어난다는것은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것과 같은 하나의 신화이다. 이것은 조선의 그 어떤 전설적힘에 대한 파시나 조선에 대한 세계의 어두운 시각에 벼락을 내려치는 가슴후련함으로만 그치는 이야기가 아닐것이다.

때가 왔다. 어제는 무르익었고 래일은 추억하게 될 바로 지금이다. 드디여 세계는 얼어붙은 력사의 동토대를 부시며 이 조선이 승리의 채광을 안고 자기의 머리우에 떠오르는 그 광경을, 그것으로 하여 보다 정의롭고 아름다와진 자기의 달라진 새 모습을 보게 될것이다.

그날은 백전백승의 70년을 경축하는 우리 당의 명절, 무한한 격정에 가슴뿌듯했던 10월의 높은 연단이였다. 우리의 김정은동지께서는 설레이는 광장과 환호하는 인민을 바라보시며 온 세계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시였다.

《세계는 조선로동당이 위대한 우리 인민의 힘과 슬기를 총폭발시켜 강성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 백두산대국을 어떻게 일떠세우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입니다.》

력사가 증명한 승리는 적지 않았다. 그중에는 한 민족의 긍지로 그치는것도 있었고 그것을 넘어 력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은것도 있었다. 그것은 처음에는 세인의 주목을 끌고 점차 시간의 흐름과 함께 하나의 대세를 이루며 어느덧 세상을 새로운 궤도우에 세워놓았다.

조선의 강국시대와 미국의 폭정시대가 자리를 바꾸게 될것이다. 먼 후날 력사가들은 오늘의 2016년을 조선의 대도약과 세계의 극적인 변화에서 매우 의미있는 시점으로 기록하게 될것이다. 그 리유는 명백하다.

조선의 승리, 그것이면 이 세상의 모든 갈망과 몸부림에 가장 명백한 진로를 열어줄수 있다. 그것이면 불행하고 미래가 어두운 인류의 손에 마지막희망의 홰불을 쥐여줄수 있다.

무엇보다도 력사상 가장 아름다운 정의와 가장 강한 신념이 맞이하는 장엄한 승리를 보게 될것이다. 자주성의 완전한 실현이라는 인류최상의 리념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 횡포한 제국주의와 맞서 존엄과 원칙과 량심을 지켜 그렇게도 장구한 피의 대결전을 치르며 마침내 온갖 전횡과 통치를 꺾어버렸다. 가고싶어도 남들은 못 간길, 갈수도 없었던 길을 죽음을 각오하면서도 기어이 가고야만 이 세계의 유일한 나라였다. 피와 죽음과 불바다와 무수한 험산험로를 헤쳐 마침내 승리의 상상봉에 올라서는 력사적순간을 보게 된다는것은 얼마나 경이적인 사실인가.

오로지 자기의 위대한 수령과 당만을 굳게 믿고 전쟁보다 더 격렬하고 죽음보다 더 힘들었던 고난의 해들을 헤치면서도 굴함없이 싸워온 이 나라의 영웅적인 인민들이 드디여 세상이 우러러보게 될 천하제일강국의 첫 주인으로 들어서게 된다는것은 얼마나 눈물겹도록 가슴벅찬 사변이며 하늘도 삼가 머리숙여 경의드릴 력사의 기적인가.

조선의 승리, 그것은 또한 인류가 기대할수 있는 마지막희망에 대한 증명으로 될것이다. 여기서 특별히 말해야 할것은 우리가 일떠세우게 될 천하제일강국은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의 문명시대라는 새로운 세계를 펼쳐보이게 된다는것이다. 이것은 인류에게 있어 하나의 거대한 발견으로, 한단계의 진보로 된다.

오랜 세월 문명은 인민이 창조해왔지만 그것의 향유자는 극소수의 부유계층이였다. 이것은 문명의 불평등이며 비극이다. 오늘 이 땅의 천지개벽은 인민이 세계적문명의 최상의 향유자로 하나하나 올라서는 과정이고 모든 꿈의 실현이란 인민이 처음으로 문명의 완전한 주인으로 되는것이다. 그것은 우리 당의 최고의 리상이 실현되는 거대한 사변,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력사적승리의 선포로 될것이다. 그것은 인류에게 어느 인민이나 모든 행복과 문명에 대한 권리와 향유의 세기적숙망을 얼마든지 이룰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안겨주게 될것이다.

만약 이 모든것이 움직일수 없는 래일의 현실이라면 조선의 승리는 이 나라의 기적으로만 되지 않을것이다. 세계는 어느덧 력사의 지각변동을 일으키게 될것이며 조선의 승리를 보면서 달라진 자기의 새 모습을 보게 될것이다. 《악의 축》과 《핵포기》를 떠들어대며 우리의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침략전쟁에 끈질기게 매달리던것으로부터 그것의 총파산을 공인하고 렬강들의 전렬에 조선의 자리를 내여주고 새로운 질서와 힘의 구도에 줄을 맞추는 자기를 보게 될것이다. 미국에 추종했던 모든 나라들의 방향전환이 잇달으고 유엔은 수없이 반복해온 제재결의와 압박공조들을 력사상 최악의 오점으로 기록하는 자기를 보게 될것이다. 그 누구의 변화를 기다리던것으로부터 자기가 변해버린 엄청난 현실앞에 서게 될것이며 《급변사태》와 《은둔국가》를 입버릇처럼 떠들던 때로부터 누구나 부러워하는 황홀한 문명국가를 따라배우는 자기를 보게 될것이다. 눈부시고 끝없이 번영하는 동방의 천하제일강국에 대한 무수한 이야기들이 세계의 화제로 떠오르고 쉼없이 찾아드는 평양행은 사람들에게 누구나 꼭 가고싶은, 정이 끌리고 뜻이 끌리는 희망행으로 될것이다.

이것으로 하여 우리 행성은 보다 평화롭고 아름답게 가꾸어질것이다. 우리의 21세기는 인류의 재앙인 미국의 종말과 함께 예속과 불평등이 없는 자주화되고 참답게 번영하는 새 세계의 첫문을 열어제끼게 될것이다.

2

우리가 내다보며 그려보는 앞날은 적어도 이렇다. 적대감이 골수에 박힌 원쑤들은 이것이 환상이고 기만이라고 떠들것이고 그에 눈과 마음이 퇴색해버린 사람들은 어리둥절해질것이다.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라해도 가혹한 역경이 막아나선 나라에서 이런 기적이 과연 일어날수 있겠는가 하는 의혹을 버리지 못할수도 있을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명백하다.

조선의 승리는 과학이다!

밤이 지나면 해가 뜨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것을 과연 누가 의심할수 있겠는가.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온 세계가 우려와 동정의 눈길로 바라보던 나라가 그 모든것을 딛고 일어나 막대한 국력을 가진 나라도 보여줄수 없는 수소탄위력과 같은 천지개벽을 일으킨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수 있다. 좀더 폭을 넓혀서 70여년에 걸쳐 단 한번의 실패를 모르고 승리만을 련속해온 백전백승의 력사와 전통에 대해 말한다면 보다 확고한 결론을 내릴수 있을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당이나 수없이 갈길을 찾고 그것이 리해관계에 따라 때없이 바뀌여지는것이 보편적이며 그로 하여 좌절과 불안은 피할수 없는 그림자와 같다. 그러나 우리의 길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변할수 없는 오직 한길이며 따라서 우리의 승리는 반드시 그렇게밖에 이루어질수 없는 법칙으로, 과학으로 된다.

우리의 길은 가면 반드시 이기는 길이다. 가면 과학이고 바꾸면 비과학이다. 가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다. 어려울수록 더 곧바로 가고 멀리 갈수록 더 끝까지 가야 한다. 정확한 침로가 있고 밝히는 등대가 있으며 무적의 전투함이 있는 한 승리의 대안까지는 《반드시》이다.

위대한 당이 이끄는 인민을 위한 길, 당과 함께 인민이 가는 길은 최고의 정의이며 최고의 과학이다. 돈과 권력은 비과학이며 인민을 떠난 모든것은 부정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인민대중이라고, 인민이야말로 백과사전이라고 늘 외우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바로 이 인민을 위한 과학의 길의 첫 개척자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길이 영원한 과학적승리의 길로 꿋꿋이 이어지도록 만능의 열쇠를 다 마련해주시였다. 주체의 길도 인민의 존엄을 위한 길이고 사회주의도 인민의 영원한 세상이다. 우리 당이 펼친 오늘의 문명강국의 눈부신 변혁도 인민사랑, 멸사복무의 고귀한 대업이다.

적들이 그렇게도 공포에 떠는 우리의 수소탄도 다름아닌 위대한 조선로동당이 인민의 운명을 지켜 결단코 틀어쥔 인민수호의 보검이다.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 미국이 가진 핵과 정의로운 인민을 위해 위대한 당과 군대가 틀어쥔 핵은 그 근본이 다르고 그 사명이 다르다. 제국주의는 전쟁이라는 《식량》을 먹어야 생존하지만 인민은 그렇지 않다. 전쟁은 제국주의의 다른 이름이고 진정한 평화는 인민의것, 위대한 당의것이다.

바로 세상에서 인민을 하늘로 떠받들고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진 위대한 어머니이기에, 인민이라는 자기의 아들딸들을 승냥이들의 칼부림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 당은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두발을 버티고 서서 인민의 존엄과 안녕을 지킬 대결단을 내린것이다. 력사에 이런 고마운 당, 이런 우러러 눈굽이 젖어드는 어머니당이 또 어데 있으랴.

그 위대한 당은 바로 우리의 김정은동지이시다.

위대한 김정은동지! 그 거룩한 존함은 단번에 인류의 가장 강력한 승리의 상징으로 온 대륙과 대양을 덮었다. 인민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그이는 과학적승리의 위대한 설계가, 위대한 실천가, 영원한 기치이시다.

정의가 곧 승리로 되는것은 아니다. 그것이 승리로 되기까지에는, 그 승리가 과학으로 되기까지에는 그것을 이끌어줄 위대한 령도의 손길이 있어야 한다. 인민이 처음으로 들었던 그이의 연설은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라는 열렬한 호소로 심장을 울리였다. 그렇게 시작되여 동무들! 승리를 확신합시다, 밝은 미래는 우리 인민의것입니다라는 준엄했던 8월의 호소에 이어 시간도 우리 편에 있고 정의도 우리 편에 있다는 든든한 배심을 받아안으며 우리는 그이와 생눈길천만리를 헤쳐왔다.

한다면 반드시 하고 이긴다면 반드시 이기는것은 우리 인민이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따라오는 나날에 수천수만번 가슴에 새긴 절대의 법칙이며 과학적신념이다.

그이는 이 시대의 강대한 승리의 주인이시다.

당중앙은 위성발사를 승인한다. 2012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발사할것!…

정확한 결단, 정확한 시간이였다. 세계는 곧 조선의 대지를 박차고 누구도 예견 못한 궤도를 따라 날아올라 단번에 우주에 진입하는 우리 위성의 경이적인 대성공을 지켜보았다. 모든 결심은 언제나 가장 정확히 계산된 과학적결심이고 정하는 시간은 언제나 틀림없는 완전무결한 성공만을 가져왔다.

당중앙은 수소탄시험을 승인한다. 2016년 1월 6일 단행할것!…

당중앙이 내린 명령에 따라 당중앙이 정한 날자에 파감히 단행한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은 우리의 승리는 《혹시》가 아니라 《반드시》이며 원수님의 결심은 곧 과학이라는 확신을 또 한번 세계앞에 보여주었다.

언제나 그랬다. 4년의 날과 달에 우리는 당중앙이 결심하고 약속한 모든것이 곧 기적과 변혁으로 바뀌는 승리의 세월을 매일같이 꿈을 꾸듯 수없이 목격해왔다. 과연 해낼수 있겠는가고 생각했던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이였다. 그것이 완공되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고 남들이 장담해나섰던 라선의 백학동살림집건설이였다. 이것만은 진짜 힘들겠다고 가슴을 조이기도 했던 과학기술전당과 미래과학자거리였다. 현재 우리의 조건에서는 엄두도 낼수 없는것이라고 손을 내저었던 지하전동차개발과 평양국제비행장건설이였다. 수소탄성공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있는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완공한 우리의 용감한 청년들은 벌써 다음단계의 새 발전소건설에 달라붙어 그것을 뜻깊은 당대회에 드리는 선물로 완공하려는 상상밖의 목표를 내세웠다. 이해의 첫아침부터 우리의 지하전동차 1호가 기운차게 땅속을 누비고 과학기술전당이 밀물처럼 찾아드는 첫 손님들을 맞이했다. 미래과학자거리의 살림집들에서는 벌써 행복의 옥동자들이 태여났다. 1월 6일 10시의 수백만분의 1초와 함께 우리는 수소탄보유국인민으로 다시 태여났다.

우리의 위대한 김정은동지이시다. 조선의 이 강대한 힘은 다름아닌 우리 원수님의 힘이다. 그 힘은 누구도 가늠할수 없는 하늘이 낸 전설적위인의 힘이며 세기를 진감하는 천하제일강국의 힘이다. 창조와 변혁쯤은 문제가 아니다. 누구도 건드릴수 없던 나라로부터 이제는 정의와 원칙, 인민의 감정이라면 그것을 세계에 요구하고 당당히 행사할만큼 보다 강대한 나라로 더 높이 일으켜세우시였다. 대국들이 패권적인 강권으로 정의의 핵을 버리라고 그렇게도 국제사회를 회유하여 달려들었으나 거기에 그보다 더 강한 수소탄보유로 대답해나선 우리 당과 인민이다. 담대하시다. 미국과의 대결선을 어제날의 38°선이 아니라 미국의 눈앞에 그어놓으시고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위협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공간에서 미제를 피수로 하는 제국주의세력에게 정의의 핵공격을 가할수 있는 핵무장력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언명하시였다.

세계에 축적되여있는 핵탄으로는 지구를 몇십번이나 깨뜨릴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류의 민심은 고사하고 한 나라의 민심도 움직일수 있는 힘은 사실상 없다. 우리 원수님의 힘은 그 어떤 수소탄의 메가톤급의 폭음이나 권력의지에 있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고금동서에 일찌기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정의에 대한 고결한 사랑,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 인류에 대한 원대한 사랑이다.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그이의 천재성과 비범출중한 전략가, 로련한 정치가로서의 령도실력, 하늘땅이 깨여져나가는것과 같은 파감한 결단들, 상식과 관례를 초월하는 대기적을 련속 창조하시는 놀라운 힘은 바로 이 진실하고 웅대하며 뜨거운 사랑에서 쉼없이 솟구치는것이다.

지어먹은 마음과 심장이 발휘하는 힘은 다르다. 어머니의 힘이 강한것은 바로 그때문이다. 조국에 전쟁이 닥쳐왔던 지난해 8월, 사랑하는 인민을 내 살붙이들이라고 부르시며 그들의 머리우에 물구름이 드리웠다고 생각하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제국주의폭제와 압력으로부터 이것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자기의것, 이 하나를 놓고 몇개의 대학을 나온 심정이였다고 그리도 절절히 외우신 우리 원수님이시였다. 희생과 고생과 슬픔을 다 합쳐 순간의 기쁨을 얻기 위해 가는것이 혁명의 길이라고 하시며 일분일초의 휴식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초인간적인 혁명시간으로 낮과 밤을 이어가시는 그이,

그래서 27마력의 목선도 철갑의 함선보다 더 편히 여기시였고 사품치는 섬초소의 날바다도 당중앙의 뜨락처럼 기꺼이 넘나드시였다. 하루도 아닌 조석으로 강산이 변하는 세월로 바꾸시고 야전차, 렬차강행군에 이어 저 하늘에도 강행군비행운을 새기신다. 그 사랑이 숨죽었던 이 나라의 바다도 길들여 황금해로 만든것이 아니던가.

지난해 8월25일수산사업소를 찾으신 우리 원수님께서는 초겨울에 억수로 쏟아지는 찬비도 아랑곳없이 외투자락이 흠뻑 젖도록 《이채어경》을 이룬 포구며 사업소의 곳곳을 다 돌아보시였다. 그걸음으로 물고기랭동저장실에도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산더미같이 쌓인 물고기산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느라 한동안 걸음을 떼지 못하시였는데 그이의 젖었던 외투에는 하얗게 성에가 불리였다. 그이께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신듯 병사들과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먹이게 된것이 못내 기쁘시여 시종 감격에 겨워하시며 보시오, 물고기가 아니라 금괴들을 쌓아놓은것 같지 않소라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원수님의 옷자락에 맺힌 하얀 얼음과 끝없이 기쁨에 넘쳐 지으신 그이의 환하신 미소, 초겨울의 차거운 비발과 선뜩한 얼음을 느낄수 없으실만큼 그렇게도 열렬하고 희열에 넘치신 우리 원수님이시였다.

이것은 작아도 큰 이야기이다. 우리의 수소탄의 진짜세기도 어떤 첨단급의 측정기구가 아니라 이 사람의 깊이를 알 때 정확히 계산할수 있을것이다. 조선이 무슨 돈과 잠재력이 있어 문명강국의 대변혁을 련속 일으키고있는가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제재목록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 천지개벽의 진짜속도, 진짜높이도 바로 이 사랑의 열도를 알아야 정확한 대답을 찾게 될것이다.

악의에 찬 중상과 으르렁대는 제재소동, 매일같은 의사표명, 분주스러운 쑥덕공론으로 또다시 세계는 소란하다. 그러나 새로운 강국의 출현은 언제나 진동을 동반하는 법이다. 그것은 인류에게 있어 매우 소중한 진리가 증명되는 과정이며 희망의 서광이 날이 밝듯 다가오는 시간일뿐이다. 조선의 승리가 과학인것만큼 조선의 앞길을 막으려는 모든 발악적인 책동이 자멸할수밖에 없는것 또한 과학이다.

천신만고의 값비싼 피와 눈물과 희생의 큰 산을 넘고 머나먼 진펄을 헤쳐 드디여 천하제일의 완벽한 힘의 보검을 쥔 조선의 앞날은 영광의 천리길, 만리길로 광활하게만 열려있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장엄한 해돋이를 만방에 떨치게 될 우리 당 제7차대회, 또 이해와 더불어 일어날 위대한 전변과 눈부실 새 모습, 이렇게 또 한해, 또 몇해 우리 조국은 얼마나 아득한 절정에 오르게 될것인가.

* *

여기에서 오늘의 세계를 잠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이 세계는 치명적인 위험과 무서운 조락을 예고하는 몇가지 중병에 걸려있다. 이 지구를 실제적으로 통치하는 보이지 않는 악마의 세력들은 세계를 재분할할것을 꿈꾸고 그 실행단계에 들어섰다. 일어나지 않았을 뜻밖의 전쟁들과 그칠새 없는 동족간 대결들, 잇달은 제도전복사태들, 약육강식의 지배권쟁탈전과 같은 사태들이 계속 확대되고 그 모든것은 마치도 짜놓은 프로그람에 따라 진행되는것과 같은 놀라움에 잠기게 한다. 이 동란으로 피해를 입는것은 무고한 절대다수의 인민이다. 이제는 피난민수가 6,000만명을 헤아리고 지난해에는 지중해에서만도 3,771명이 물에 빠져 죽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경찰이 총으로 쏴죽인 사람만 해도 사상최고기록으로서 986명이나 된다고 한다. 여기에 자본주의적인 탐욕과 략탈행위로 행성의 생존공간도 사상최대로 파괴되고있다.

일찌기 어느 한 철학가는 세계란 걸음마다 펼쳐보는 책이라고 했다. 그러나 오늘의 세계는 걸음마다 다시 보게 되는 반복이며 교조이다. 이 나라, 저 나라나 세계는 어디를 가보나 정치풍토, 경제방식, 문화생활 등 모든것이 다 엇비슷하며 어느 도시에 가보나 건물과 거리들과 사회의 공기도 지어 옷차림과 음식문화까지도 한모양새로 되고있다. 모든것이 따분하고 단조로우며 무미건조하다. 양키식세계화는 생존공간만이 아니라 정신문명도 파괴해버리고있다.

여기에 미국웨브싸이트에 실린 《자본주의는 더러운 세계》라는 글의 몇대목을 적어본다. 《현재 미국내에서는 현 사회현상에 반항하는 결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있다. 2015년 한해동안 미국에서 가장 많이 찾고 쓰인 단어가 바로 사회주의이다.…

2013년에 미국 시애틀시의회선거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선택당이 승리하였다. 유력한 정치 및 경제재단들이 사회주의세력들의 진출을 막아보려고 각방으로 훼방을 놓았지만 허사였다.》

자본주의상징인 미국땅에서 벌어진 이 사실이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참으로 의미심장한것이다. 그것은 사회주의조선의 승리가 과학이라면 미국에게는 그 종말이 과학이라는것을 객관적으로 시사해주기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오늘날 인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있으며 조선의 승리와 그 눈부신 빛을 가로막는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신랄히 반증하고있다.

세계는 무엇인가 자기가 달라지기를 바라고있다. 인류는 무엇인가 도처에서 희망을 찾고있다. 드디여 그 간고한 진통과 오해와 몸부림끝에 선명하고 아름다운 눈부신 해돋이를 맞이할 때가 된것이다. 그것은 바로 지구의 동쪽 백두산의 나라 조선에서 솟는, 력사의 온갖 쓰레기들을 저 멀리 력사의 지평선너머로 처박아버리며 거연히 솟아오르시는 정의의 태양, 위대한 김정은태양이다.

동 태 판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에 화답하여 세차게 타오르는 생산적앙양의 불길

승리의 신심에 넘쳐 화차생산성과 확대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에서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소식에 접한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주체조선의 위력을 다시한번 떨칠 애국의 마음안고 대고조전투장들에 더 많은 화차를 생산하여 보내주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커다란 환희와 격정에 넘쳐 드세찬 공격전을 벌려 올해에 들어와 불과 며칠동안에 10량의 화차를 생산하여 대고조전투장들에 보내주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의 돌파구를 열자면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이 총진격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야 합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첫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하였다는 격동적인 소식에 접한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화차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이 일어나도록 일군들과 로동자들을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일군들이 화차생산전투로 끓어번지는 현장에 나가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화차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창조할것을 호소하면서 대중을 총돌격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특히 일군들은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더욱 다그치도록 로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짜고드는 한편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여 올해 련합기업소앞에 맡겨진 화차생산과 수리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고있다.

화차생산의 첫 공정을 맡은 단위들이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혁신의 앞장에서 기세좋게 내달리고있다.

주강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전기로의 정상가동을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매일 많은 량의 쇠물을 뽑아내여 화차생산에 필요한 주강품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고있다.

단조직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직장앞에 맡겨진 생산계획을 매일 1.5배이상 넘쳐 수행하고있다.

부속품가공과 조립을 맡은 단위들에서도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1, 2가공직장에서는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화차생산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들을 질적으로 가공하여 매일 련합기업소앞에 맡겨진 과제를 앞당겨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화차조립분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여 매일 맡은 화차조립과제를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대차직장에서도 로력조직과 생산지휘를 짜고들고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적극 받아들여 직장앞에 맡겨진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고있다.

이밖에도 제관직장과 프레스직장을 비롯한 련합기업소의 모든 단위들에서도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화차생산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고있다.

지금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새해 첫 전투에서 거둔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열의밑에 화차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신천일

조국이여, 마음껏 설계하시라

룡성기계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맏아들답게 당의 사상과 위업을 맨 앞장에서 받들며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추켜들고나가야 합니다.》

—하루를 열흘, 백날 맞잡이로!

—부속품가공계획 교대당 130%이상씩 넘쳐 수행!

우리 나라에서 첫 수소탄시험에 완전성공하였다는 공화국정부 성명에 접한 이후 련합기업소의 현장들에는 이런 제목의 속보판들이 련이어 나붙고 온 기업소가 전례없이 앙양된 전투적분위기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이 일어난 소식에 격동된 심정을 금할수 없어 룡성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교대가 따로 없이 분초를 쪼개가며 대상설비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에 보내줄 대형기계설비생산투쟁으로 밤이 지새고 새날이 밝는 나라의 위력한 대상설비생산기지, 돌이켜보면 룡성의 로동계급은 언제나 대상설비생산으로 우리 당을 억세게 받들어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관철하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온 나라에 지펴가시던 때인 주체56(1967)년 6월 룡성기계련합기업소를 찾아주시고 룡성의 로동계급이 천리마대고조의 앞장에 서야 한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그때로부터 몇해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은 룡성의 당원들을 믿고 6개년계획을 세웠는데 대상설비생산을 룡성이 선코에 서서 끌고나가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룡성의 로동계급을 굳게 믿으시고 혁신의 한길로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룡성기계련합기업소를 여러차례나 찾아주시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나 다 만들어내는 힘있는 기업소로 키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룡성의 로동계급은 당의 요구라면 그 어떤 어려운 과제도 무조건 수행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만능공장이라는 높은 칭호를 받아안았다.

우리 당의 세심한 손길아래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꾸려진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는 오늘 새형의 여러가지 압축기와 지열설비를 비롯하여 무엇이나 마음먹은대로 다 만들어내고있다.

주체102(2013)년 3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피끓는 심장으로 받들고 룡성의 로동계급은 한해한해를 충정과 위훈으로 수놓아왔다.

나라의 대규모화력, 수력발전소들과 제철, 제강소, 탄광, 광산, 건설장 등 인민경제 중요부문, 중요단위들중에 룡성과 잇닿아있지 않는 부문과 단위는 거의나 없다.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라선 주체조선의 막강한 위력을 과시하는 력사적인 사변이 펼쳐진 오늘 룡성의 로동계급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자신들의 사명감을 더더욱 절감하고 신들메를 바싹 조이고있다.

—당이여, 조국이여! 마음껏 설계하시라, 그리고 더 많은 중요과업을 우리에게 맡겨달라.

언제나 대상설비생산으로 당을 받들어온 룡성의 로동계급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경제강국건설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특파기자 박동석

더 많은 동발나무와 통나무를

성간림산사업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통나무생산을 늘이는데서 겨울철통나무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리는것이 중요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성간림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드높은 열의를 안고 겨울철통나무생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사업소의 일군들은 광명성절전으로 년간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수행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생산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창평작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산지통나무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북동작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서로 돕고 이끌면서 매일 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고있다.

작업소별, 생산소대별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사업소적인 산지통나무, 동발나무생산실적이 계속 높아지고있다.

사업소의 일군들은 작업소들의 산지나무터들에 쌓인 동발나무, 통나무수량을 매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지체없이 실어내기 위한 수송조직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또한 작업소별선후차를 옳게 정하고 자동차들로 편대수송을 조직하면서 작업소들의 산지나무터들에 쌓여진 동발나무, 통나무를 지체없이 운반하도록 하고있다.

운전사들인 최순남, 김철성동무들이 동발나무와 통나무수송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이고있다.

림철기관차들이 마감나르기에서 크게 한몫하고있다. 림철기관사들인 강영봉, 김대혁동무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해나가면서 증송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다. 선로작업반의 선로공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수십리나 되는 선로를 돌아보면서 림철기관차들의 무사고운행을 믿음직하게 뒤받침하고있다. 림철공무운수직장의 일군들과 수리공들은 결사관철의 정신,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으로 자동차들의 만가동, 림철기관차들의 정상운행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소식에 접한 때로부터 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열의에 넘쳐 산지동발나무, 통나무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동세웅

강서세멘트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

용솟음치는 힘과 열정

첫 수소탄시험에 완전성공한 민족사적대경사에 접한 강서세멘트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투쟁기세가 대단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패이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보도에 접한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일제히 원석채취전투장과 소성로보수전투장에 뛰여들었다.

공장초급당위원회에서는 종업원들의 앙양된 열의를 총폭발시켜 생산에서 비약적인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대책을 즉시에 세웠다. 시작부터 원석을 통채로 따내면서 승승 기세를 올렸다.

《이 기세로 원석생산을 본때있게 내밀시다!》

지배인 송일남동무의 힘찬 호소에 호응하여 사기를 올린 청년들이 작업공구들을 들어쥐고 앞장에 나서는데 이에 뒤질세라 녀성종업원들도 웃고 떠들며 전투서렬에 합세하였다.

원석채취전투현장은 삽시에 불도가니로 변하였다.

입김을 날리며 힘차게 곡괭이질을 해대는 청년들, 맞들이를 들고 내달리는 종업원들, 우릉우릉 울을 쓰는 굴착기의 동음…

전투는 날이 저물도록 계속되였다.

수소탄시험성공의 기쁨을 터치는 축포성이런가 여러차례의 발파소리가 골안을 들었다 놓았다.

박토처리실적도 놀라왔고 원석운반량도 근 100t에 달했다.

종업원들이 용솟음치는 힘과 열정을 후련히 원석생산에 쏟아붓고있을 때 소성로보수현장에서도 전례없는 속도가 창조되고있었다.

소성로직장의 전투원들은 종전에 엄두도 못 내던 많은 량의 내화벽돌을 반나절동안에 전부 나르고 로축조작업에서도 놀라운 실적을 기록하였다.

우리의 국력이 비상히 강화되였다는 크나큰 민족적긍지, 원쑤들의 머리우에 준엄한 철추를 내렸다는 승리자의 자부심으로 온 공장이 부글부글 끓어번지였다.

두려울것 무엇이며 못해낼 일이 무엇이랴.

공장의 속보판에는 대문짝같은 혁신의 소식들이 나붙고 종업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아지고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필승의 기상을 안고 백두의 눈보라마냥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정녕 이 세상에 없다.

특파기자 주창선

철정광생산에서 새 기록 창조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에 접한 무산광산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크나큰 환희와 격정에 넘쳐 철정광생산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지난 1일 50만산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무산의 로동계급은 철정광증산을 위한 힘찬 돌격전을 벌려 공화국정부 성명에 접한 지난 6일 하루생산계획을 190%로 넘쳐 수행한 그 기세로 계속 힘찬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공화국정부 성명에 접한 즉시 모든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위대한 선군령장의 령도밑에 날로 끓임없이 룡성번영하는 내 조국의 존엄과 위용을 더 높이 떨치며 쇠돌생산과 철정광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당책임일군을 비롯한 련합기업소일군들은 2선광직장을 비롯하여 선광부문과 로천채굴장들에 나가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 이야기해주면서 위대한 선군령장을 모신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무산의 로동계급의 본때를 남김없이 발휘하자고 힘있게 호소하였다. 일군들은 생산현장에서 로동자,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었다.

로천분광산과 2선광직장을 비롯한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철정광증산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련합기업소일군들은 앙양된 대중의 열의에 맞게 전투조직과 지휘를 화선식으로 짜고들고있다. 그리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고있다.

광산의 로동계급은 수소탄까지 보유하고 핵보유국의 전렬에 올라선 무진막강한 국력을 가진 우리 민족의 존엄과 기개를 더욱 높이 떨칠 열의를 안고 힘찬 전투를 벌려 철정광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로천분광산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내 조국의 국력을 남김없이 발휘한 과학자, 기술자들처럼 자체의 힘과 기술로 50만산대발파와 같은 대발파들을 련속 진행할 드높은 열의밑에 합리적인 발파방법들과 굴뚫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쇠돌생산을 부쩍 높여나가고있다.

쇠돌과 박토운반을 맡은 운전사들은 사회주의경쟁의 열풍속에 교대가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리며 더 많은 쇠돌과 박토를 실어나르기 위한 힘찬 돌격전을 들이대고있다.

1, 2, 3호대형원추형파쇄장을 맡은 단위들에서는 철정광이자 곧 강철이며 강철이자 국력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대형원추형파쇄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매일 맡겨진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2선광직장의 로동계급도 철정광생산의 마지막공정을 지켜섰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기대마다 만부하를 걸어 지난 시기보다 생산실적을 부쩍 늘이며 날마다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의 기술집단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첫 수소탄시험을 완전성공시킨 과학자, 기술자들처럼 살며 투쟁할 열의안고 우리의 설계, 우리의 기술에 의거한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60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18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들과 중앙과 지방의 청년동맹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첫 수소탄시험의 대성공으로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친 기세드높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2016년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는 우리 조국이 새로운 천리마시대, 만리마시대를 펼치며 더 높이, 더 빨리 솟구치게 하는 투쟁과 전진의 표대이며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의 지름길을 밝혀주는 강령적지침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뜻깊은 올해의 서막을 장쾌한 수소탄의 폭음으로 열어제낀 그 기상, 그 본때로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총공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높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우리 공화국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는데 동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청년동맹조직들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끝까지 관철하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과 명령, 지시를 즉시접수하고 최상의 수준에서 즉시집행하고 즉시보고하는 혁명적규률과 사업기풍을 확립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사상을 혁명의 원동력으로 삼고 5대교양에 화력을 집중하여 모든 청년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뼈속깊이 새긴 사상의 강자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수령의 유훈관철, 당정책옹위전에서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산림복구전투를 본격적으로 벌리고 도시와 농촌, 일터와 마을들을 알뜰하게 꾸리며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훈련을 강화하여 향토방위를 위한 만단의 전투동원준비를 갖추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청년들이 적극 앞장서며 도덕기강을 세우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온 사회에 건전하고 문명한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청년강국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모든 청년들을 조국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며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청년동맹일군들이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청년들의 심장에 불을 달고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며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뜻깊은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진군에서 선군시대 청년전위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보호부문일군회의 진행

【평양 1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보호부문일군회의가 1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박봉주동지, 오수용동지, 로두철동지, 태종수동지와 도당책임비서들,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무력기관, 중앙과 지방의 당, 정권기관,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군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산림복구전투와 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교훈이 분석총화되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이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먼저 지난해 산림복구전투정형을 수록한 록화편집물이 방영되였다.

이어 김용진내각부총리의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에서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리기 위한 과업들을 천명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복구전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입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산림복구사업을 중요한 정책적, 전략적과업으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지난해에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전국적으로 수억그루의 나무를 심고 수많은 나무모를 생산하였으며 1 300여t의 나무종자를 확보한것을 비롯하여 산림복구전투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인민군대에서 야외나무모재배장과 물보장을 위한 수원지, 굴포들을 새로 건설하였으며 각지에서 양묘장들을 개건하고 나무모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외무성, 대외경제성, 교육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재정성, 수산성, 륙해운성, 락원지도국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들에서는 좋은 나무종자와 선진과학기술자료, 설비들을 마련하고 평양시와 황해북도에 심은 나무들에 대한 비배관리를 잘하여 사름률을 높이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당일군양성기관과 여러 중앙대학의 교원, 학생들이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과 도시경영성 중앙양묘장, 평양시안의 산림복구전투장들에 달려나가 집단적혁신을 일으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도, 시, 군들에서도 산림복구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성과를 거두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평양시와 자강도의 책임일군들이 대중속에 들어가 군중의 심장에 불을 지펴 양묘장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나무모생산계획을 완수하였으며 산림복구전투가 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어지도록 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태천군, 평원군, 덕천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나무모들을 수많이 생산하였으며 산림보호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단천시와 안악군, 철원군, 운산군을 비롯한 많은 시, 군들에서 나무모생산기지들을 튼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생산을 늘일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해놓은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두가 올해의 산림복구전투에서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여 우리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든 일군들이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산림조성10년전망계획수행을 위한 단계별, 년차별계획을 바로세우고 작전과 지휘를 잘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모든 단위들에서 나무종자파종을 과학기술적요구대로 하고 봄철산림복구전투에 력량을 총동원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구상하시고 의도하시는대로 나무모생산을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할수 있게 양묘장들을 건설하며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리고 선진기술보급체계를 세워 산림복구전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지난해 국토관리총동원사업정형을 수록한 록화편집물을 시청하였다.

편집물에는 위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뜻깊은 지난해 전국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나라의 면모를 강성국가의 체모에 맞게 일신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거둔 많은 성과자료들이 수록되여있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의 수도 평양을 비롯하여 새롭게 변모되는 우리 조국의 모습을 소개하는 편집물을 보면서 희세의 천출위인을 모시여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며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조석으로 강산이 변하는 벅찬 현실을 다시금 깊이 절감하였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산림복구전투와 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서 나타난 편향들에 대하여서도 분석총화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고 산림복구전투와 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요구에 맞게 치료예방사업을 개선하자

유훈관철전이자 자강력을 다지는 길이다

묘향산의료기구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중앙과 지방의 각급 병원들에 가면 《묘향산》이라는 상표를 단 의료기구들을 볼수 있다. 그 의료기구들에 대한 의료일군들의 평가도 좋다.

우리의 힘과 기술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그 의료기구들을 묘향산의료기구공장에서 해마다 수백대씩 생산하여 각급 병원들과 진료소들에 보내주고있다.

별로 크지 않은 이 공장에서 여러가지 종류의 현대적인 의료기구들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내여 그 이름이 온 나라에 알려지게 된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다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에 정통하고 그것을 사업과 생활의 신조로 삼도록 교양사업을 짜고드는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기구생산에서 난문제로 나서는것은 원료문제라고 말할수 있다. 그도그럴것이 이들이 생산하는 의료기구 한대에 들어가는 부속품만 하여도 천개가 넘는데 그것을 다 만들자면 다양한 재질의 강재들이 있어야 하는것이다.

생산의 첫 공정이라고도 할수 있는 이 강재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 시기에는 자재보장일군들이 발이 닳도록 뛰여다녔다. 몇주일 지어 몇달씩이나 출장길에서 보내면서 해당 단위들에서 필요한 자재를 받아오군 하였다. 물론 이렇게 받아온 자재들이 생산에 이바지한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자재해결방법에는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 계획한 날자는 다가오는데 강재가 도착하지 못해 속태운 나날도 많았으며 아글타글 노력하여 받아온 형타들이 제품설계가 달라진것으로 하여 쓸모없이 되여버릴 때도 종종 있었다.

이처럼 제품갱신과 계획수행을 위한 자재보장이 제때에 따라서지 못하는것으로 하여 공장에서는 적지 않은 애로를 느끼고있었다. 종업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것은 물론이고 제품의 현대화사업에서도 지장을 받고있었다.

공장일군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자체의 힘으로 제품갱신과 생산에 필요한 재질의 강재를 시기마다 뽑아쓸수 있는 로를 건설하였다는것이다. 국가과학원 연구사들과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과의 협동작전으로 전기를 적게 쓰면서도 생산성이 높은 로를 일떠세우니 좋은 점이 많았다.

강재의 질을 보장할수 있는것은 물론이고 필요한 때 여러가지 형타들도 짱짱 주물해낼수 있었다. 즉 의료기구현대화사업을 마음먹은대로 내밀수 있었다.

로를 만든 기술집단의 실력이나 로의 생산능력과 같은 실무적인 문제를 론하기 전에 우리가 강조하고싶은것은 이 모든 성과가 바로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안아온 귀중한 열매라는것이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필요한 강재의 량과 질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고있는 공장형편을 알아보시고 이 공장에서 쓸 적은 량의 강재까지 큰 공장에서 만들게 하면 질을 잘 보장하지 못할수 있으니 로를 작게 건설해놓고 필요한 강재를 생산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수십차에 달하는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가르치심을 자자구구 연구하며 하나하나 집행해나가는 과정에 공장일군들인 김남혁, 최명건동무들이 심장으로 체득한것이 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은 그대로 공장이 자체로 일떠설수 있고 현대화의 큰걸음도 내디딜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도라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공장이 흥하고 잘살수 있다는것을 실천을 통하여 진리로 확증하였던것이다.

최근 보건성 일군들의 지도밑에 이곳 공장에 무진화가 실현된 현대화구역이 조성되고 CNC기계들과 수자조종장치가 달린 선반들이 하나둘 늘어나고있는 사실 역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일군들의 노력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늘어나는 수요에 맞게 의료기구들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한 문제가 절정에 올랐을 때였다. 종업원들이 무조건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겠다고 결의해나섰지만 일군들의 생각은 달랐다.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는 특별한 묘술이 없이 열성 하나만 가지고서는 높아가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던것이다.

결정적으로 시대의 요구에 따라설수 있는 생산능력을 갖추어야만 하였다. 그래야만 당면한 계획수행은 물론 높은 정밀도와 질보장을 요구하는 새형의 의료기구들도 개발할수 있었다.

공장일군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도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에서 찾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생산설비들을 현대화하기 위해 단번에 5대의 기계들을 CNC화하고 7대의 선반들에 수자조종장치를 도입하는 높은 목표를 제기하였다.

물론 이 모든것을 생산계획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해결하여야 하였다. 쉽지 않았다. 로력은 둘째치고라도 단번에 10여대의 설비들이 가동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생산에 지장을 줄수 있었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어떻게 관철하는가에 따라 공장의 오늘만이 아니라 래일의 휘황한 전망도 결정된다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한 이들이였기에 그런것은 문제로도 되지 않았다. 일군들과 당조직은 종업원들에게 공장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교시들을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 오늘의 투쟁이 다름아닌 수령의 유훈관철전이며 공장이 10년, 20년을 주름잡으며 더 높은 령마루에 올라설수 있는 애국충정의 전투임을 자각하게 하였다.

모두가 하루 3교대로 주야전투를 벌려나갔다. 방대한 투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물감장사마냥 짜고드는 일군들의 사업조직으로 하여 불과 몇달사이에 계획된 의료기구들을 전부 생산하면서도 의료기구의 질을 높일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게 되였다. 얼마전 공장에서 새형의 의료기구를 멋들어지게 만들어내놓은것이 그 대표적실례의 하나이다.

결코 저절로 마련된 기적이 아니였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뼈에 쪼아박고 유훈관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힘차게 달려온 나날에 이룩된 자랑찬 성과이며 유훈관철전과 더불어 더욱 굳건히 다져진 자강력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공장에서는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100% 우리의 힘과 기술에 의거한 새형의 의료기구를 생산할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비록 크지 않아도 의료기구생산에서 확고한 패권을 잡으려는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의 투쟁경험은 당에서 가르쳐준대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는데 자기 단위의 힘과 기술을 튼튼히 다져나가는 자강력의 길이 있으며 자강력만 있으면 생산활성화이든, 현대화이든 못해낼 일이 없다는 진리를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옥별

국산화와 의료봉사사업의 성과

◇ 보건부문에서도 국산화의 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지난해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정성제약종합공장이나 온 나라에 소문난 평천고려약공장과 같이 많은 단위들에서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여러가지 의약품생산의 원료보장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원료의 국산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그런가하면 보건성 의료기구공업관리국아래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서처럼 최신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공정들을 현대화하고 우리의 힘과 기술로 전자위내시경을 비롯한 진단치료설비들과 의료소공기구들을 련이어 만들어내는 놀라운 성과들이 가는 곳마다에서 펼쳐지고있다. 얼마전에는 우리 식의 라선식뇌CT가 개발되여 치료예방사업에 적극 도입되고있다.

의료일군들과 인민들로부터 우리의 상표가 달린 현대적인 의료기구들과 의약품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때마다 보건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당의 요구대로 국산화를 실현하는 길이자 곧 치료예방사업을 개선하는 지름길이라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고있다.

◇ 치료예방사업의 기본수단인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원만히 갖추기 위하여 보건부문 일군들과 과학자, 의료일군들모두가 떨쳐나서야 한다.

전장에 나선 병사들에게 무기가 부족하면 승리를 기대하기 어려운것처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대로 발휘해나가자면 결정적으로 질좋은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보건사업을 발전시키자면 의약품과 의료기구, 위생재료같은것을 집중적으로 생산하여 병원들에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남들이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인간에 대한 뜨거운 정성을 기본속성으로 하는 가장 훌륭한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있다.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켜나가기 위하여 자기의 피와 살을 바치는것은 우리 의료일군들속에서만 발휘될수 있는 고상한 미풍이다. 여기에 현대적인 의료기구들과 효능높은 의약품들이 원만히 보장될 때 보건일군들의 의료봉사사업에서 보다 훌륭한 성과를 기대할수 있다.

때문에 오늘 인민들이 사회주의제도가 좋다는것을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사회주의보건제도와 같은 사회적혜택속에서 실지로 느끼도록 하자면 보건부문 일군들이 병원들과 진료소들에 의약품과 의료기구들을 제때에 갖추어주는 사업과 함께 해당 단위들에서 어떻게 하나 자체의 힘으로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기구들을 만들어 의료봉사사업에서 큰 은을 내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잘 짜고드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 보건부문에서 의료기구와 의약품생산에서의 국산화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입병을 없애는것도 사회주의수호전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보건부문에서 현대적인 의료기구와 의약품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할데 대한 당의 방침들을 언제나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우리의 실정에 맞는 의료기구와 의약품생산을 늘이고 그 질을 더욱 높일수 있다.

그러자면 보건부문 일군들과 과학자들속에 남아있는 수입병을 대담하게 뿌리빼고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에 의거하여 질좋은 제품들을 더 많이 내놓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자체의 힘과 지혜로 현대적인 의료기구들과 의약품들을 만들어내고있는 단위들의 성과와 경험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보건부문의 전체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이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새 제품들을 더 많이, 더 질좋게 만들어낼 때 인민들이 심장으로 터치는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온 나라에 더 크게 울려퍼질것이다.

구급치료에서 효과적인 약물 개발

함경북도인민병원에서

최근년간 함경북도인민병원에서는 구급환자들에 대한 치료사업을 개선하는데 큰 힘을 넣어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의료봉사사업을 잘하여야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 보호증진시킬수 있으며 전반적무상치료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습니다.》

구급환자치료에서 신속성을 보장하는것은 각급 병원들의 치료사업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주체96(2007)년 함경북도인민병원을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소생실에는 생명을 담보할수 있는 구급약과 치료시설이 다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면서 그 집행을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병원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오는 과정에 구급치료에 절실히 필요한 약물을 개발하여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소생 및 집중치료파에 실려오는 구급환자들은 대체로 뜻밖의 일로 피를 많이 흘렸거나 의식이 거의 없는 환자들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그들에 대한 치료에서 성과를 거두자면 우선 낮아진 혈압을 높여주는것이 선차적인 문제로 나선다.

짧은 시간안에 혈압을 올리지 못한다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와지는것은 물론 제때에 수술을 진행할수 없다. 지난 시기 이곳 의료일군들은 여러가지 수액들을 리용하는 방법으로 혈압을 올리군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의식회복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없었다.

동성권, 윤덕룡동무를 비롯한 병원의료집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구급환자들의 소생률을 높이는데서 가장 관건적인 문제의 하나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지난 기간 그를 위한 연구사업에 총력을 집중해나갔다.

고심어린 노력끝에 이들은 마침내 적은 량을 주입하면서도 빠른 시간안에 구급환자들의 혈압을 훨씬 높여줄수 있는 새로운 약물개발에 성공하였다. 이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새해에 들어와 이미 개발한 약물에 여러가지 약성분들을 첨부하여 치료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마지막단계에서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이들이 목표하고있는 높은 수준의 약물은 체내에서의 페하물 조절해주고 높여준 혈압을 오랜 시간 지속시켜줄수 있는것으로 하여 구급환자치료에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한다. 또한 우리 나라에 있는 원료들을 리용하는것으로 하여 어느 보건단위에서나 만들수 있다.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새로운 약물들을 계속 개발해나가고있는 이들의 경험을 본받아 병원의 모든 파들에서도 치료예방사업에 이바지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문제해결에 적극 뛰여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 보호증진시키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는 함경북도인민병원 의료일군들의 사업성과가 기대된다.

본사기자 주령봉

1월계획을 앞당겨 끝낸 비결

연산영예군인고려약공장에서

연산영예군인고려약공장에서 지난 10일까지 높이 세운 1월 지표별, 공업총생산액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비결은 무엇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이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효능높은 약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2년전 어느날 공장의 지배인으로 배치되여온 황금철동무의 생각은 깊었다.

군안의 일군들의 적극적인 방조속에 약초채취사업이 군중적인 운동으로 힘있게 벌어져 계획수행에 필요한 원료들이 원만히 보장되고는 있었지만 생산에서는 응당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있었다.

원인을 분석하면 지배인은 한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당시 공장의 일부 종업원들은 단위가 도안의 고려약공장들중에서 일정한 순위권에 들어가있는것을 일종의 자부로 여기고있었다.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그들의 어조에는 영예군인공장으로서 그 정도면 대단하지 않은가 하는 속대사가 깔려있었다.

지배인은 자기의 사업에서 빈틈이 있음을 자각하고나서 자신부터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고 군사복무의 나날처럼 일할것을 결심하였다.

기업관리경험이 부족했던 지배인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로작을 학습하던 과정에 당이 제시한 일생산 및 재정총화의 우월성을 다시금 깊이 체득하였다.

그는 즉시 여러 단위들에서 그 우월성이 확증된 일생산 및 재정총화를 엄격히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여기서 지배인을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이 잘한것이 있다.

공장에는 약초선별, 절단, 세척, 제조 등 서로 다른 업종들에 따르는 하루 로동정량이 이미 규제되여있었다. 이런 경우 자칫 잘못하면 서로 다른 업종들에서의 차이점은 보지 않고 매 업종들에서의 하루 로동정량에 대한 평가만을 하나의 자막대기로 삼아 일생산 및 재정총화를 진행하는 편향이 제기될수 있었다.

개별적인 업종들호상간에 실지 어느것이 얼마나 더 힘든가를 보다 정확히 료해하기 위해 지배인을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은 바쁜 속에서도 자신들이 직접 시간을 정해놓고 절단, 세척, 제조, 포장 등을 진행해보았다. 서로 다른 업종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 대한 일생산 및 재정총화를 공장의 실정에 맞게 편향없이 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기초하여 공장에서는 일생산 및 재정총화기준을 바로 정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총화를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경쟁에서 앞선 종업원들에 대한 평가사업을 적극 따라세웠다.

이 과정에 종업원들속에서는 공장에 대한 애착심이 더욱 커가고 경쟁열의가 세차게 일었으며 결과 계획수행에서는 전례없는 성과들이 이룩되게 되였다.

지배인이 배치되여온 2014년말에 년간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한 공장에서는 지난해에는 말겨진 년간 지표별계획을 당창건기념일까지 앞당겨 끝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25일까지 수행하였던 1월 지표별, 공업총생산액계획을 뜻깊은 올해에는 1월 10일까지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로써 불과 3년전만 해도 도안의 고려약공장들중에서 일정한 순위권에 있던 공장이 오늘은 전국에 소문을 낼수 있게 되였다.

경험은 일군들이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는 옳은 방법론을 찾아쥐고 대중의 열의를 불러일으킬 때 응당한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방경찬

—김만유병원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치료예방사업에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청년강국의 주인, 선군혁명의 척후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70돐 경축행사대표들

평양시 여러곳 참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70돐경축행사대표들이 평양시의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대표들은 해방된 조국땅에 첫 병기공장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군수공업의 초행길을 진두에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아로새겨져있는 선군총대의 고향 평천혁명사적지를 찾았다.

전시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면서 그들은 자립적국방공업건설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만고의 업적이 있기에 오늘 우리 조국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지킬 자위의 혁탄, 수소탄을 보유한 핵강국의 전렬에 들어설수 있었음을 가슴뜨겁게 절감하였다.

조국해방전쟁사적지를 참관한 대표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전승령도업적이 력력히 어려있는 최고사령부지휘처를 비롯한 사적지의 여러곳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백두령장의 체취가 어려있는 사적물들을 통하여 그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위대한 전승을 안아오신 어버이수령님의 탁월한 령군술, 천리혜안의 지략과 고매한 덕성을 깊이 체득하였다.

대표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물려주신 총대유산의 축도이며 선군조선의 막강한 국력의 상징인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주체적인 국방공업과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고결한 충정과 도덕의리심에 의하여 무장장비관이 훌륭히 일떠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여러 판과 야외전시장을 깊은 감동속에 보았다.

경축행사대표들은 또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70돐기념 사진전람회장도 돌아보았다.

경축행사대표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대고조격전장들마다에서 조선청년의 전투적기상과 용맹을 떨쳐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70돐 경축행사대표들 평천혁명사적지 참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창립 70돐을 맞으며

우표 발행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70돐을 맞으며 국가우표발행국에서는 우표(소형전지 1종)를 창작하여 내놓았다.

소형전지의 웃부분에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70돐》, 《주체35(1946)—주체105(2016)》이라는 글발과 청년동맹마크가 부각되여있다.

휘날리는 붉은색바탕의 기폭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정중히 모시고 그 아래에 《청년전위》라는 글을 새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휘장이 우표의 중심에 형상되여있다.

소형전지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높이 떨치며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의 영예를 계속 빛내여갈 청년전위들의 불굴의 신념과 억센 기상이 반영되여있다.

수도의 청년대학생들

사회정치활동 활발히 전개

수도의 청년대학생들이 방학기간 시안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과 건설장들에서 사회정치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의 돌파구는 전력문제해결에 있다는것을 심장에 새긴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인쇄공업대학, 평양외국어대학의 청년대학생들이 새해벽두부터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 달려가 사회정치활동을 힘있게 벌렸다.

평양326전선공장, 평양베아링공장, 평양자동화기구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들에도 평양콤퓨터기술대학, 평양외과대학, 평양기계종합대학 등의 청년대학생들이 달려나가 성의껏 준비한 지원물자들을 넘겨주고 로동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다채로운 경제선동활동도 벌리고있다.

시안의 건설장들에 달려나간 평양건축종합대학,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평양경제기술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청년대학생들은 전투속보들과 학생청년기동선동대활동으로 건설장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공사를 로력적으로 힘있게 지원하였다.

평양체신전문학교, 평양정보기술전문학교 학생들도 교육도서인쇄공장, 평양고등교육도서인쇄공장들에 나가 힘있는 사회정치활동으로 생산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었다.

수도 청년대학생들의 전투적이며 기백있는 사회정치활동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로동계급의 투쟁에 박차를 가해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없어진 경쟁도표의 공백

속도전청년돌격대 제2려단 돌격대원들

청춘은 무엇으로 아름다운것인가.

우리는 이에 대한 대답을 속도전청년돌격대 제2려단 대원들의 미덥고 자랑스러운 모습에서 찾아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우리 청년들은 당이 정해준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달리며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과 청년문화를 창조하였으며 만사람을 감동시키는 훌륭한 미풍들을 발휘하였습니다.》

4대대에서 있은 일이다.

어느 대대나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돌격대원들은 명절분위기로 떠들썩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돌격대원들이 기다리던 휴가를 가게 되는것이다. 제나름대로 휴가일정을 면밀히 짜고 돌격대원들은 은근히 기다리고있었다.

하지만 소대장 오은미동무는 밤새 잠들수가 없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설자들이 3호발전소건설을 당 제7차대회전으로 끝낼것을 결의하고 휴가도 미루면서 령하 30℃를 오르내리는 엄혹한 추위속에서도 밤낮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고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휴가를 응당 받아야 하는것으로만 생각했던 자신이 민망스럽고 막 부끄러웠다. 그는 다음날 정치지도원을 찾아가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백두대지의 돌격대원들처럼 오늘의 하루하루를 빛나게 살고싶습니다. 휴가기간을 여기 김일성경기장개건공사에 바치겠습니다.》

어느새 알았는지 많은 대원들이 련이어 찾아왔다.

정치지도원은 대원들을 달래며 이야기하였다.

《정향동문 위장염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이번에 내려가 꼭 고쳐야지요. 그리고 은별동문 돌격대에 입대하여 첫 휴가가 아니나요. 이번 휴가기간에 나도 함께 가서 동무를 키우느라 수고하신 어머니를 만나보고싶었는데… 꼭 가서 우리 동무들의 몫까지 합쳐 인사를 올리세요.》

그러나 처녀돌격대원들은 막무가내였다.

《소대장동지도 여기에 남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도 내가 여기서 일을 잘한다는것을 아시면 기뻐하실겁니다. 그러니 저를 여기에 남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 가면 저 경쟁도표의 공백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날 그 처녀돌격대원은 자기의 일기장을 빌어 어머니와 이야기하였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보고싶어요. 그래서 이번엔 그동안 어머니를 돌봐드리지 못한 이 딸이 꼭 가자고 했는데…

우리 소대장동지랑 어머니에게 가라고 내 등을 떠밀어주지만 난 초소를 비워두고 갈수가 없어요. 김일성경기장을 훌륭히 개건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고 어머니에게로 달려가겠으니 저를 기다려주십시오. 어머니…)

…

이 소식은 삽시에 온 려단에 퍼지게 되였으며 전체 대원들은 휴가를 김일성경기장개건공사에 바칠것을 결의해나섰고 청춘의 기상인양 경쟁도표의 붉은 줄은 련이어 솟구쳐올랐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경철

령도자가 위대하여 민족이 강대하다

주체105(2016)년의 장엄한 서막을 열어제낀 선군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소식은 전파에 실리자마자 우주공간에 차넘쳤고 그것이 일으킨 전대미문의 거대한 충격파는 행성을 뒤집어놓았다. 우리의 핵뢰성은 대정치지진으로 세계를 뒤흔들고있다.

우리 겨레는 물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진보적인류는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으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일찌기 체험한적 없는 공포와 전률의 나락속에서 비칠거리고 있다.

정녕 조선민족의 강대함과 존엄은 온 우주에로 뻗치고있다.

력사는 자기의 갈피에 핵강국의 전렬, 지구의 중심에 우뚝 선 선군조선의 높이, 행성의 정의와 평화를 견인하는 조선민족의 위대한 힘에 대하여 새롭게 서술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의 위대성은 령토의 광대성이나 력사의 유구성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이끄는 수령의 위대성에 있다.》

지난날 부국강병을 바라던 우리 민족의 력사적숙원은 로동당시대에 와서 빛나는 현실로 되였다.

《아! 조선아, 왜 너는 남과 같이 크지를 못하였느냐.》라며 사대로 멍든 가슴을 쳤고 망국노의 울분을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절규하던 우리 민족이였다. 렬강들의 각축전장으로 수난많던 강토는 일제의 발굽밑에 무참히 짓밟혔다.

우리 민족은 력사도 유구하여 반만년이다. 문화도 찬란하여 동방의 등불로 빛났다. 허나 지난 세기초 주먹이 약한탓에 침략의 횡포한 힘앞에 망국의 굴욕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그래서 부국강병을 소원으로 안고있던 우리 겨레이다.

에나 지금이나 조선반도의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오늘 우리 조국은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공간에서 민족의 자주권에 도전하는 침략세력들을 정의의 힘으로 징벌할수 있는 핵강국이 되였다. 렬강들에게 짓밟히던 약소국이 세계를 굽어보는 백두산대국으로 되였다. 우리 민족은 수난자의 눈물을 훔쳐야 했던 그 손에 자기 운명의 천만년미래를 담보하는 수소탄까지 틀어쥔 강성민족으로 솟아올랐다.

로동당시대가 안아온 위대한 현실이다.

여기에 지난 2006년 10월 우리의 첫 핵시험성공소식에 접한 남녘민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일화가 있다. 당시 남조선의 《참말로》라는 인터네트홈페지에는 우리 공화국의 첫 핵시험으로 일어난 세계의 《지각변동》을 두고 이런 의미심장한 글이 실렸다.

《제2의 고구려전성기를 알리는 포성이라 하겠다. 지난날 약소국의 설음을 딛고 강대국으로 거듭 자라난 우리 민족, 이제 새로운 력사가 시작된다.》

그후 미국과 프랑스의 정계, 학계 인물들은 많은 남조선주민들이 우리 공화국의 핵시험소식을 듣고 긍지와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고 하면서 그들속에는 택시운전사도, 군장교와 외교관도 있었다고 말하였다.

오늘 수소탄까지 보유하고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우리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위력과 더불어 하늘에 닿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무슨 말로 다 전할수 있겠는가. 만천하에 파시된 조선민족의 강대함은 반만년민족사의 최고의 경지에 올라섰다. 선군조선의 수소탄뢰성은 우리 민족에게 우주의 신비함을 다 모아도 비길수 없는 큰 힘을 안겨주었다.

1920년대에 인디아시인 타고르는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이 다시 켜지면 동방의 밝은 빛이 될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 선군조선은 동방만이 아닌 세계를 밝히는 태양의 나라로 빛을 뿌리고있다.

민족의 위대성은 그 민족을 이끄는 수령의 위대성에 달려있으며 민족의 가장 큰 행운은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는데 있다.

우리 공화국의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자주적신념과 천리혜안의 예지, 불패의 선군정치가 안아온 위대한 승리이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1960년대에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우리 조국을 그 어떤 원쑤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이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자위적국방력을 마련하였기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안녕을 영예롭게 수호할수 있는 선군조선의 억년기틀을 다질수 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어버이수령님의 선군사상을 계승하여 독창적인 선군정치방식을 창조하시고 발전시키신 불세출의 선군태양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핵위협과 압살공세가 절정에 달하였던 전대미문의 시련의 시기에 선군정치로 반미대결전을 련전련승에로 이끄시며 핵보유의 민족사적대업을 이룩하시였다.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횡포한 도전으로 조국앞에 만난시련이 겹쌓였던 고난의 행군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렬치신 선군정치가 없었다면 강대한 선군조선의 오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제시하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핵강국건설업적을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는 선군조선의 필승의 기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전략적로선이 있어 우리 공화국은 경제강국건설과 군력강화의 길에서 세인을 경탄케 하는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우리의 첫 수소탄은 이렇게 태여났다. 우리의 수소탄이야말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투철한 반제자주사상과 견결한 자주권수호의지, 평화애호리념이 집대성되여있는 조선민족의 자랑스러운 재부이다.

주체의 핵강국이 울린 수소탄뢰성은 병진로선의 거대한 생활력을 만천하에 과시하고 자주강국의 위력한 무기인 자강력으로 세계를 들어올린 쾌승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병진로선에 대해 그 무슨 《불가능》이니 뭐니 하며 온갖 악담질을 일삼아왔다. 압력과 회유, 모략과 날조 등 갖은 비렬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병진의 롱마를 탄 우리의 전진을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는 인민의 행복한 모습으로 원쑤들의 면상을 보기좋게 후려갈겼다. 그리고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병진로선을 헐뜯는 온갖 허접스러운자들의 궤변을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았을뿐아니라 그 오물통마저 완전히 불살라버렸다.

병진로선이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최고리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이며 우리 인민이 핵강국의 덕을 입으며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로선이라는것이 웅변으로 립증되였다.

우리는 이번에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지혜에 100% 의거하여 수소탄개발에 성공하였다. 병진로선과 자강력으로 세계적인 핵강국의 전렬에 올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을 발아래로 굽어보고있다.

지레대와 지지점을 주면 지구를 들겠다고 한 고대그리스의 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살아서 오늘의 장엄한 현실을 목격한다면 강대한 태양의 나라 조선이 병진로선과 자강력으로 세계를 들어올렸다고 웨쳤을것이다.

우리가 단행한 수소탄시험은 제국주의침략세력의 핵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조치이다.

세계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면서 끊임없는 핵위협을 가해왔기때문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핵을 보유하게 되였다. 이미 지난 조선전쟁때부터 우리 인민을 상대로 원자탄공갈을 시작한 미국은 전후 남조선에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이곳을 세계최대의 핵화약고, 북침핵전초기지로 만들었다.

북침핵전쟁연습은 우리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며 로골적인 핵위협공갈이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각종 북침핵전쟁연습들을 년례행사처럼 벌리면서 조선반도에 항시적인 핵전쟁위협을 조성하였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최우선적인 핵공격대상으로 지정하고 남조선과 공모결탁하여 핵, 상용무력을 총동원한 《확장억제력》으로 임의의 시각에 북침핵전쟁을 도발하려 하고있다. 미국은 우리의 평화협정체결제안마저 뿌리치고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더한층 강화하고있다.

핵미치광이들의 열뜬 머리를 식혀줄 방책은 오직 하나 강력한 자위적핵억제력으로 침략자들의 핵을 최종적으로 제압하는것이다. 우리의 수소탄시험은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는 정정당당한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이다.

선군조선의 수소탄보유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은 믿음직하게 지켜지게 되였다. 그래서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은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하고 세계평화를 수호하는 력사의 대장거, 민족사적사변으로 되는것이다.

고도로 정밀화되고 소형화된 첫 수소탄시험을 완전성공시킨 우리는 미국땅을 통채로 날려버릴 수소탄도 얼마든지 만들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아직도 교훈을 찾지 못하고 실패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전철을 계속 밟는다면 우리는 도발자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적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휘두르고 총을 내대면 대포를 내대는 강인담대한 정면돌격전으로 최강의 핵보유국인 우리를 똑똑히 알게 할것이다.

이제는 미국이 주체의 핵강국앞에 무맥해진 아메리카제국의 신세를 한탄하며 정의와 평화를 유린하던 그 더러운 주먹으로 굴욕과 락망의 눈물을 닦을 차례가 되였다.

해내외의 온 겨레여,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신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굳게 간직하라. 그리고 그 신념, 그 의지로 민족의 단합과 자주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리 효 진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은 매국배족행위

성노예피해자들의 가슴에 칼을 꽂은 협상

남조선언론이 비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14일 《위안부피해 할머니들의 요구까지 외곡한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집권자가 신년기자회견이라는데서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한 굴욕협상을 두고 《력대 정부도 못한 최상의 합의》라고 자화자찬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각계의 비난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았다고 밝혔다.

사설은 피해자들이 그동안 일본정부가 성노예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공식사죄와 국가적배상을 할것을 요구해왔다고 주장하였다.

더우기 정부급의 공식적사죄요구는 거부당하였다고 하면서 사설은 성노예문제는 일본이 국가적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배상을 하는것이 핵심이지만 집권자의 기자회견은 이를 완전히 외곡하였다고 규탄하였다.

집권자는 성노예피해자들의 가슴에 칼을 꽂은 협상결과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였는가 하면 성노예범죄로 피해받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문제해결을 남조선과 같은 수준으로 해달라고 일본에 요청하고있다는 망발까지 하였다고 사설은 단죄하였다.

사설은 이번 협상이 세계 각국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일본대학교수 《합의》의 부당성 폭로

남조선 《경향신문》에 의하면 일본대학교수가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의 부당성을 폭로하였다.

도꾜대학 명예교수 와다 하루끼는 13일 도꾜에 있는 참의원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이번 성노예문제와 관련한 일본과 남조선사이의 《합의》에 대해 일본집권자가 일종의 기습공격을 한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관련단체와의 의견교환이 없이 갑자기 《합의》가 발표되여 충격을 받았다고 피력하였다.

일본집권자가 바란것은 사죄를 무마하고 죄를 감추면서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려는것이라고 그는 까밝혔다.

그는 집권자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였다.

협상과정에 수상의 《사죄》를 외상이 대독하였다고 하지만 협상장소밖에 있은 사람들은 그것을 확인할수 없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특히 서울의 일본대사관앞에서 진행되는 수요집회장소에 일본대사가 한번도 찾아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일본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합의》를 파기하라

남조선단체가 강조

남조선의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가 지난해 12월 30일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한 일본과 남조선사이 《합의》를 배격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이번 《합의》는 성노예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민중의 우려를 해소하지 않은채 이루어진 《망국적, 매국적야합》이며 밀실협상의 결과물이라고 단죄하였다.

성노예피해자들과 민중의 요구는 일본이 과거의 부당한 지배력사를 반복하지 않는다는것을 명백히 다짐하는 진정한 사과라고 성명은 주장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수상의 대독사과와 재단설립을 명분으로 성노예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을 선언함으로써 일본 우익세력과 군사팽창주의세력의 력사적죄행을 풀어주었다고 성명은 비난하였다.

성명은 군국주의력사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전제로 되지 않은 기만적사과는 피해자와 남조선민중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규탄하였다.

성명은 《정부》가 일본과의 이번 야합을 무효로 하고 성노예문제해결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일본정부는 공식사죄하라

남조선 각계가 강력히 요구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13일 서울에서 일본의 과거 성노예범죄를 덮어버린 굴욕협상을 반대하는 투쟁이 전개되였다.

남조선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작가회의를 비롯한 각계층 단체성원들과 성노예피해자들이 소녀상앞에서 수요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피해자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타결한 일본과의 《합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정부》가 성노예문제를 이렇게 허무하게 처리할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일본이 내놓기로 한 돈을 받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소녀상의 이전이나 철거에 대해 남조선당국과 일본은 말할 자격이 없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성노예피해자들을 속이고 입을 막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일본이 공식사죄하고 법적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녀성단체련합과 녀성민우회 등 30여개의 녀성단체들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가지고 이번 《합의》는 전면무효라고 선언하였다.

녀성단체들은 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은 피해자들의 존엄을 회복하고 외곡된 력사를 바로잡기 위한 전쟁반대, 평화실현운동이라고 하면서 이 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될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정부가 성노예범죄를 인정하고 법적배상을 해야 하며 당국은 굴욕적인 《합의》를 한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단체는 요구하였다.

민주로총 서울본부와 서울진보련대 등도 소녀상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번 《합의》의 리면에는 일본의 재무장과 남조선, 미국, 일본의 군사공조가 놓여있다고 폭로하였다.

한편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등 16개 대학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협상규탄 대학생대표자 시국회의》는 외교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번 굴욕 《합의》는 무효이며 소녀상을 이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일본의 특대형반인륜적범죄를 덮어버린 남조선당국의 친일매국적인 굴욕행위가 남조선 각계의 거센 항의를 불러일으키고있다.

8일 남조선의 《국민일보》가 여론조사결과를 밝힌데 의하면 일본군성노예문제에 대한 남조선과 일본사이의 《합의》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가 반대립장을 표시하였다.

여야당내에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하였다.

반대와 부정을 나타낸 응답자들은 그 리유로 일본정부의 성노예범죄에 대한 법적책임과 공식사죄, 배상이 없이 돈으로 과거죄악을 덮어버린것, 피해자들을 비롯한 민중들의 의사를 무시한것, 범죄의 증거물인 소녀상을 철거하려는것이라고 하면서 파렴치한 일본과 굴욕적인 남조선당국을 규탄하였다.

이 여론조사결과에는 미일상전의 지령에 따라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서슴없이 팔아먹은 현 남조선당국의 굴욕행위에 분노를 터치는 남녘민심이 반영되여있다.

지난해 12월 28일 남조선과 일본의 성노예문제 《합의》는 일본의 천인공노할 성노예죄행에 대한 국가적, 법적책임과 사죄와 배상을 무마하고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을 다시금 무참히 짓밟는 천만부당한 정치적흥정물이다.

나아가서 일제의 과거죄행을 청산하기 위한 민족의 념원과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바라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다.

국제적인 반인륜범죄행위인 일본군성노예문제는 그 누구의 정치적리해관계에 롱락될 흥정물이 아니며 일본과 남조선당국사이의 외교를 통해 해결될수 있는 문제는 더우기 아니다.

일본이 수많은 녀성들을 강제련행, 랍치, 유괴하여 성노리개로 만든 치떨리는 인권유린만행의 진상은 만천하에 드러나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이 국제사회공동의 과제로 인식되고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은 물론 세계 각지의 일본대사관, 일본총령사관앞에서 남조선과 일본당국의 정치적야합, 불법적 《합의》를 단죄하는 세계련대행동이 힘차게 전개되고있다.

굴욕 《합의》에 대해 전면무효를 선언해야 한다

남조선지역들에서 항의투쟁 전개

남조선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보련대, 《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대학생모임》을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이 9일 서울광장에서 일본군성노예범죄와 관련한 굴욕 《합의》의 무효를 선언하는 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당국이 성노예범죄의 옳바른 청산을 요구해온 피해자들과 민중의 목소리를 외면한채 굴욕적인 《합의》로 관련협상을 서둘러 타결했다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피해당사자도 납득할수 없는 《합의》가 어떻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로 될수 있는가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일본의 전쟁범죄를 지우고 가리워주는 손바닥이 되려 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무엇이 그렇게 급하여 피해자들과 한마디의 의논도 없이 협상을 타결지었는가고 하면서 그들은 전쟁범죄에 대한 공식사죄가 없는 이번 《합의》가 누구를 위한것인지 의문이라고 항의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미국, 일본과의 3각군사동맹조작을 위해 굴욕적이고 졸속적으로 타결한 이번 협상의 《합의》에 대해 전면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침략동맹을 위한 발판에 불과한 《합의》를 무효로 하지 않는다면 비극의 력사가 언제든지 조선반도에서 재현될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일본의 전쟁범죄를 결코 보고만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일본이 과거죄악에 대해 공식인정, 사죄하며 법적배상을 하도록 진상규명과 옳바른 력사교육을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려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일본이 소녀상철거가 아니라 그를 확대하고 추모관 등의 건립으로 피해자들을 추모하며 다시는 전쟁범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때까지 싸우자고 그들은 호소하였다.

그들은 이번 굴욕 《합의》로 하여 일본에 재침의 길이 열리게 되였다고 하면서 이를 반드시 막아낼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집회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시위행진을 하였다.

시위자들은 《합의 전면무효》, 《소녀상을 지키자》 등의 구호를 들고 행진하면서 우리 민족앞에 저지른 일본의 과거범죄를 눈감아주는 당국의 굴욕행위를 강력히 단죄하였다.

한편 이날 광주의 시민사회단체들도 광주시청앞에 있는 소녀상앞에서 당국의 굴욕 《합의》를 규탄하는 시민집회를 가지였다.

【조선중앙통신】

불행한 청춘, 비참한 운명

지금 썩고 병든 남조선사회에서 청년들은 반인민적악정으로 하여 앞날에 대한 희망도 없이 절망과 고통속에 신음하며 비참한 처지에 빠져있다.

남조선의 한 잡지는 그에 대해 이렇게 썼다.

이 사회에 청년은 없다. 우리 사회에서 새 세대 젊은이들의 어깨에 민족의 장래가 걸려있다고 믿고있는 사람은 없다. 진취성과 패기라는 젊음이 가지는 유일한 특성을 잃고 걸늙어가고있는 청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사회의 완벽한 축소판을 본다.

남조선신문 《한겨레》는 《청년실신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이남의 청년들이 척박하고 암울한 삶을 보내고있다고 개탄하였다.

다른 언론들도 《〈바늘구멍〉만 한 청년취업의 문 올해는 더 좁아진다》, 《청년실업은 늘고 전세값은 뛰고》, 《집나간 청소년 방황》 등의 제목으로 항시적인 실업위기에 시달리면서 온갖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는 청년들의 처지를 전하였다.

미래에 대한 포부를 안고 살아야 할 청년들이 사랑도 결혼도 출산도 지어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까지 포기하며 청춘의 삶을 유린당하고있는것이 오늘의 남조선현실이다.

당장 먹고 살아가기조차 힘들어 길가를 헤매이는 청년들은 말할것도 없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업을 얻지 못한 청년실업대군이 거리를 방황하고있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두고 남조선에서는 대학졸업후 취업에 실패하여 실업자가 되고 대출받은 학비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들을 《청년실신》, 장기간 미취업자라는 뜻의 《장미족》, 20대의 90%는 백수(직업없는 사람)라는 뜻에서 《이구백》, 20살도 되기 전에 직장에서 쫓겨난다는 뜻에서 《이퇴백》이라는 말이 류행처럼 나돌고있다.

돈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꿈을 포기해야 하는 사회에서 청춘의 생기는 고사하고 자살의 길을 택하지 않으면 안되는 남조선청년들의 처지는 그야말로 막바지이다.

【조선중앙통신】

썩은 정치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소란한 선거정국‖

4월총선거를 앞둔 남조선정국이 소란스럽기 그지없다. 청와대와 《국회》, 여당과 야당, 친박계와 비박계의 대립과 갈등으로 남조선정계에는 전례없는 대결국이 펼쳐지고있다.

제일 치렬한 싸움은 집권자의 《4대개혁》 관련법안들의 처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청와대와 《국회》의 대결이다.

지난 온 한해 《4대개혁》 관련법안처리에 명줄을 걸고 악을 써보았지만 끝내 목적을 이루지 못한 남조선집권자는 밸이 꼬일대로 꼬인 나머지 계속 《국회》에 압력을 가하고있다.

그러나 《국회》는 집권자의 이런 고충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있다. 여야세력들에게는 청와대가 들고나온 법안들보다 《선거구확정법안》의 처리가 더 시급하다. 그것을 빨리 매듭지어야 다음기 《국회》의원자리를 노리고 본격적인 선거경쟁에 나설수 있기때문이였다.

《4대개혁》 관련법안들에 대한 《국회》의 이런 늑장대응에 분별력을 잃은 집권자는 청와대를 내세워 《국회》의장에게 《선거구확정법안》에 앞서 《4대개혁》 관련법안들을 먼저 처리하라고 계속 강박하고있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 나타난 남조선집권자가 법안처리가 지연되는것을 놓고 《국회》를 걸고든데 이어 6일에는 청와대가 《국회》의장과 법안처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렸다. 《새누리당》내의 친박계는 《국회》의장사퇴발언까지 공개적으로 하고있다.

하지만 《국회》의장도 가만있지 않고있다. 그는 집권자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야합의를 주장하며 《4대개혁》 관련법안들에 대한 직권상정은 절대로 있을수 없다고 뻗치고있다. 야당도 《4대개혁》 관련법안들의 직권상정을 완강하게 반대하고있다. 결국 새해에 들어와 1월 림시 《국회》가 열리였지만 《4대개혁》 관련법안들은 뒤전에 밀려나고 각 정치세력들사이의 대립만 심화되고있다. 각계층 인민들의 악법반대투쟁의 목소리에는 귀를 틀어막고 《국회》를 자기 부하 다루듯 하며 《4대개혁》 관련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발악하는 남조선집권자의 독단과 전횡은 정국혼란을 부채질하는 근원으로 되고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선거구확정법안》처리문제를 놓고서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국회》마비사태는 심화되고있다.

올해 4월 남조선에서는 총선거(《국회》의원선거)가 있게 된다. 《선거구확정법안》은 총선거가 있기 6개월전까지 처리되여야 한다. 하지만 여야사이의 리해관계의 충돌로 총선거가 3개월앞으로 다가온 오늘까지도 그 해결전망은 보이지 않고있다. 특히 《선거구확정법안》에 앞서 《4대개혁》 관련법안들을 먼저 처리하라는 청와대의 강박으로 《새누리당》이 여야협상때마다 그 법안처리를 주장해나서고있는것이 문제이다. 지난 11일에도 여야가 협상을 벌렸지만 그것은 법안처리를 한사코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완고한 자세와 이를 거부하는 야당의 립장으로 하여 결렬되고 말았다. 여야가 가뜩이나 선거대로 나가다가는 총선거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게 될것이라고 경고하고있다.

현재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있어 선거구공백사태는 장기화될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총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속에서는 선거를 연기하라는 목소리까지 울려나오고있다. 불순한 정치적목적밑에 극도의 정국혼란을 조성하는 보수집권세력에 대해 남조선각계는 침을 뱉고있다.

한편 《새누리당》내의 친박계와 비박계사이에 벌어지는 주도권쟁탈을 위한 개싸움도 정국혼란의 원인으로 되고있다.

지금 《새누리당》내의 친박계와 비박계는 서로 자기 파 인물들을 이번 총선거에서 당선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있다.

《새누리당》내에서는 이미 전에 비박계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지방자치제선거, 《국회》의원보충선거 등을 통해 친박계를 밀어낸것으로 하여 남조선집권자는 여당내에서조차 따돌림당하였다. 지난해 2월에 있은 《새누리당》 원내대표선출에서도 친박계는 패하고말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남조선집권자는 지난해에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였던 비박계인물인 류승민을 제거해버리였다. 그다음 초점으로 된것이 역시 비박계이며 당대표인 김무성이다. 청와대가 김무성을 아니꼽게 여기면서 그의 사위가 마약상습범이라는것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흘리여 그를 수세에 몰아넣은 후 일종의 타협을 하였지만 앙금은 여전하였다. 얼마전에도 《새누리당》에서 총선거후보선출을 위한 규칙을 놓고 론쟁이 벌어졌는데 친박계는 시작부터 비박계에 대한 공세를 취하였다. 결국 모임은 자기 파 인물들을 후보로 내세우는데 유리한 규칙을 만들려고 잔꾀를 부리는 친박계와 비박계의 소란스러운 싸움으로 끝나고말았다.

한쪽에서는 도탄에 빠진 인민들의 울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데 다른쪽에서는 인민을 등진 시정배들이 권력다툼을 하며 더러운 정쟁만 일삼고있으니 바로 이것이 썩을대로 썩은 남조선정치의 진면모이다. 남조선에서 근로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나날이 심화되고있는것은 반역이 체질화된 집권자와 정치간상배들의 추악한 권력싸움과 떼여놓고 볼수 없다.

이제 선거가 시작되면 시정배들은 지금껏 배척해온 인민들을 찾아가 역겹게 절을 하고 허튼 공약을 늘어놓으며 또다시 지지표를 구걸할것이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선거철이면 흔히 볼수 있는 현상이다.

하지만 보수패당의 속심을 빤드름히 알고있는 인민들이 환멸을 느낄대로 느낀 이런자들에게 파연 지지표를 던지겠는가 하는것이다. 인민의 불행과 고통을 외면하는 반역무리들에게 차례질것은 참패와 수치뿐이다.

본사기자 장 윤 남

조선인민은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울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적극 지지하여

여러 나라 정당, 단체, 국제기구 성명 발표, 결정서 채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지지하여 따쥐끼스딴공산당 중앙위원회가 11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년사를 발표하시였다.

신년사에는 조선인민이 지난해 이룩한 성과들과 올해에 수행하여야 할 투쟁과업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여있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에 토대하여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갈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따쥐끼스딴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발표하신 신년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중지하고 조선과의 평화협정체결에 나설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올해에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만을 이룩하리라고 굳게 확신한다.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지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로씨야협회가 4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새해 2016년에 즈음하여 하신 력사적인 신년사를 커다란 환희와 격동속에 접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조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안이 조선의 통일위업실현에 적극 이바지할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정치경제적 및 인도주의적련계를 강화하려는 로씨야련방 지도부와 정부의 건설적인 조치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지지하여 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가 1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각하께서 하신 신년사를 열렬히 지지환영한다. 김정은각하께서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문제, 문명국의 체모를 갖추기 위해 건설부문에서 대번영기를 끊임없이 이어나갈데 대한 문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져나갈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새해 조선인민앞에 제시하신 과업과 방도들을 적극 지지한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을 걷어치워야 하며 조선반도의 정세를 악화시키는 군사적도발을 중지하여야 한다.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이 조선반도의 평화 및 안전보장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최우선과제라는것을 인정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하며 더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남조선당국은 통일을 위한 가장 훌륭한 방도는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자체로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는것을 인식하여야 할것이다.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지지하여 네팔공산당(련합) 중앙위원회가 8일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결정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네팔공산당(련합) 중앙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환영한다.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력사에서 빛나는 리정표로 된다. 우리는 영원히 주체의 한길을 끝까지 걸어갈 억척의 신념과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의지가 담겨져있는 그이의 신년사를 적극 지지한다.

주체105(2016)년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해이다.

네팔공산당(련합) 중앙위원회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으로 될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리라고 확신한다.

련대성집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그 관철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집회가 방글라데슈인민련맹,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 방글라데슈선군정치연구소조의 공동주최로 4일 다카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에는 방글라데슈의 정당,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주체사상연구조직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먼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해 2016년을 맞으며 하신 신년사가 랑독되였다.

이어 연설들이 있었다.

방글라데슈인민련맹 위원장 가리브 네와즈를 비롯한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는 새해를 맞으며 조선인민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는 력사적인 신년사를 하시였다고 하면서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해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은 세계적인 경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고 언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집회에서는 련대성성명이 채택되였다.

성명은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는 신년사에서 2015년을 장엄한 투쟁의 해,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친 승리와 영광의 해로 총화하시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2016년을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력사적인 해로 빛내여나가기 위한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전진하는 조선인민의 올해투쟁에서 승리와 영광이 있기를 축원한다.

적대세력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긴장한 정세속에서도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에게 변함없는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운동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갈것이라고 확신한다.

독보회, 해설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대한 독보회가 메히꼬, 나이제리아에서 5일과 7일에 진행되였다.

독보회들에는 메히꼬인민사회당, 메히꼬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위원회,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나이제리아주체철학연구소조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독보회들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해 2016년을 맞으며 하신 력사적인 신년사에 대한 독보에 이어 발언들이 있었다.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헤쑤스 안또니오 까를로스 에르난데스와 메히꼬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위원회 위원장 라몬 히메네스 로뻬스는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과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내용을 렬거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는것은 자주독립국가의 응당한 권리이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조선의 자위적조치를 걸고들면서 사회주의제도를 말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들은 원쑤들의 온갖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지키기 위한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을 찬양하였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알하싼 땜맨 무함마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는 신년사에서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에 토대하여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갈데 대해 밝혀주시였다.

신년사에 제시된 조국통일방안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한다.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에 대한 해설모임이 영국 런던에서 2일과 3일에 진행되였다.

모임들에는 영국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 영국신공산당, 영국공산당(맑스-레닌주의),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모임들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기본내용에 대한 해설에 이어 발언들이 있었다.

영국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 전국지도자 크리스 클레만은 2015년은 조선인민이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이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수많은 창조물들을 일떠세운 승리의 해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계는 김정은동지이시야말로 일단 결심하면 반드시 해내는 실천가형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라는것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미제의 끊임없는 새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리시였으며 특히 8월 일촉즉발의 위기를 단호한 혁명적결단과 강대한 군사력으로 타개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심으로써 조선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도록 하시였다.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영국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 총비서 마이클 챤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에는 혁명적락관주의와 계속혁명사상이 관통되여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은동지처럼 지난해사업을 총화하시고 새해에 달성하여야 할 목표를 부문별로 뚜렷이 제시하신 지도자는 세계에 없다.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나갈데 대한 그이의 신년사를 학습할수록 세계혁명가들의 투쟁의 앞길이 더욱 명백해진다고 생각한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 더모트 하드슨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조선땅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실 굳은 결심을 표명하심으로써 반통일세력에게 커다란 타격을 안기시였다.

우리는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사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반대하는 운동을 적극 벌려나갈것이다.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부리사장인 영국공산당(맑스-레닌주의) 대표 키스 벤네트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세계의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한 사실을 통해서도 그이께서 지니고계시는 높으신 국제적권위를 잘 알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하신 김정은동지의 말씀은 천만번 정당하다.

남조선당국이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할것과 외세에게 《공조》를 구걸하는 수치스러운 행위를 그만둘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담화 발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지지하여 베닌사회주의당 위원장 알리 후두가 2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각하께서 2016년 새해에 즈음하여 하신 력사적인 신년사를 지지한다.

김정은각하의 신년사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설계도이다. 또한 조선통일문제를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해결하며 북남사이의 대화와 교류를 통하여 끊어진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조선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불멸의 대강이다.

남조선당국은 부질없는 체제대결을 추구할것이 아니라 민족의 총의가 집대성되여있는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하는데로 나와야 한다.

김정은각하께서 신년사에서 밝혀주신 조국통일방안을 다시한번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것을 축원한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대장거

신비로운 비약을 이룩하는 조선

외국인들의 반향

정력적인 령도로 이 땅우에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을 창조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목소리가 외국의 벗들속에서 끝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오가미 겡이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을 방문하고 하루가 다르게 일신되여가는 평양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김정은제1비서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조선에서는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는 창조와 변혁의 기적들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다. 나날이 훌륭히 변모되는 조선의 현실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그이의 헌신과 로고를 잘 알수 있게 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일본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련락회대표단 단장 가마꾸라 다까오는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참관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농장에 깃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총비서의 세심한 지도와 김정은제1비서의 현명한 령도를 잘 알게 되였다. 조선이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책동속에서도 끄떡없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고있는것은 김정은제1비서를 모시고있기때문이다.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 하리쉬 굽따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조선에서 건설의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평양국제비행장이 이처럼 훌륭하게 완공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빠른 속도로 변모되는 평양의 모습에서 신비롭게 비약하는 조선을 보았다.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위원장 더모트 하드슨도 평양국제비행장이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다, 이 건축물이 어떻게 짧은 기간에 일떠섰는가를 잘 알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비행장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현지에서 지도하시며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이께서 지니신 해박한 지식과 비범한 령도력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다고 자기의 흥분된 심정을 터놓았다.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리사장 헨리 마찌쿄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판이 그 규모와 형식, 내용에 있어서 세계 최상급이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의 모습은 더욱 문명하고 참신하게 변모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성원 굽따 챤드라 프라카쉬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을 돌아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라의 천생산에서 많은 몫을 맡고있는 이 공장의 녀성로동자들을 위하여 훌륭히 꾸려진 로동자합숙을 참관하면서 고급호텔에 들어선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자기 령도자의 크나큰 사랑속에 신심과 정열에 넘쳐 일하는 로동자들의 모습에 감동되였다.

행성을 진감하는 조선의 뢰성

꽁고사회주의청년조직, 아랍지역기구 성명 발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을 축하하여 꽁고사회주의청년조직이 11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첫 수소탄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조선이 단행한 수소탄시험이 적대세력들의 날로 가증되는 핵위협과 공갈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조치라고 간주하면서 이를 열렬히 축하한다.

방대한 각종 핵살인무기로 자기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있는 미국과 맞서고있는 조선이 정의의 수소탄을 틀어쥔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위적권리이며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는 정정당당한 조치로 된다. 조선은 극악무도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근절되지 않는 한 자기의 핵개발중단이나 핵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있을수 없다고 엄숙히 천명하였다.

천만번 정당한 조선의 뢰성이 행성을 진감하고있다.

한편 조선인민과의 련대성 및 조선통일지지 아랍위원회가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축하하여 10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을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대장거로 높이 평가하면서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의 힘과 기술로 첫 수소탄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핵보유국의 전렬에 당당히 등장하였으며 나라의 자주권을 더욱 굳건히 수호할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이번 수소탄시험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조치라고 언명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부 성명에서 《우리 공화국이 단행한 수소탄시험은 미국을 위수로 한 적대세력들의 날로 가증되는 핵위협과 공갈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조치이다. 오늘의 엄혹한 현실은 자기 운명은 오직 자기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철의 진리를 다시금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저들의 침략무력을 당장 철수시키며 남조선으로 하여금 조선반도 남측에 구축된 콩크리트장벽을 당장 해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명정대한 제안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것이다.

카나다세계연구소 웨브싸이트에 실린 글

조선이 왜 핵무기를 보유하였는가

카나다세계연구소가 11일 웨브싸이트에 《조선이 왜 핵무기를 보유하였는가? 조선에서 감행한 미국의 전쟁범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이 도발한 전쟁으로 조선은 재더미만 남았다.

미국은 평양을 비롯한 도시와 마을들, 전략적대상들에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하였으며 핵무기까지 사용하려고 하였다.

공화국북반부의 거의 모든 지역이 미군의 폭격으로 완전한 페허로 되였으며 화학 및 세균무기사용으로 조선인민은 고통에 시달렸다.

1952년 3월 국제민주법률가협회조사단이 조선을 방문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이 이 나라 인민에게 감행한 야수적만행을 조사하였다.

미국 전 사법장관도 조선에서 감행한 미국의 범죄행위를 고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오늘 조선에서 전쟁은 결코 끝난것이 아니며 장기간의 정전상태가 지속되고있다.

미국은 전후 수십년간 조선을 혹독하게 괴롭혔으며 조선인민은 미국에 의해 헤아릴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조선에 대한 새로운 제재는 무의미한것이다.

조선반도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간섭책동은 지역의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있으며 인류에게 무서운 참화를 들씌울 새로운 세계대전을 불러오고있다.

미국의 제국주의정책은 세계평화의 가장 큰 위협으로 된다.

【조선중앙통신】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국산제반잠함 취역

인디아에서 최근 국산제 《카드마르》반잠함이 해군에 취역하였다. 반잠함의 배수량은 3 300t이며 속도는 25km이다.

콜카타시에 있는 조선소에서 취역식이 있었다 한다.

테로반대투쟁

파키스탄정부가 최근 판잡주에서 반테로작전을 벌렸다.

결과 국제테로조직인 《이슬람교국가》와 련관되여있는 42명의 범죄자들이 체포되고 많은 무기들이 압수되였다 한다.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가봉에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그 한 고리로 새해에 나라의 모든 주들에서 알곡증산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게 된다. 또한 농업부문에 2만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청년들을 이 부문에 진출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게 된다 한다. 최근 이 나라 대통령이 밝혔다.

경제 장성

싱가포르에서 지난해 경제가 그 전해에 비해 2.1% 장성하였다. 특히 4.4분기에 제조업부문에서 생산이 6% 늘어났다고 한다.

4일 이 나라 무역 및 공업성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이란의 원유정제공장

국제체육소식

2016년 유럽속도빙상선수권대회

2016년 국제빙상동맹 유럽속도빙상선수권대회가 9일과 10일 벨라루씨의 민스크에서 진행되였다.

이번 대회에는 15개 나라에서 온 40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남자종합순위에서는 네데를란드선수들이 1위와 3위를, 벨지끄선수가 2위를 쟁취하였다.

녀자종합순위에서는 체스꼬선수가 1위를, 네데를란드선수들이 2위와 3위를 하였다.

2016년 세계 20살미만 빙상호케이선수권대회

2016년 세계 20살미만 빙상호케이선수권대회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 참가한 10개 팀은 먼저 5개 팀씩 2개 조로 나뉘여 조별련맹전을 진행하고 매 조에서 성적이 높은 4개 팀씩 도합 8개 팀이 준준결승경기에 올라갔다.

결승경기에서는 주최국팀인 핀란드팀이 로씨야팀을 4:3으로 이기고 4번째로 우승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핵위협공갈을 일삼아온 미국의 범죄적정체(1)

조선인민에게 핵참화를 들씌운 전범자

미국의 반공화국핵위협공갈은 조선민족말살을 노린 전대미문의 반력사적, 반인륜적범죄로서 우리 겨레의 분노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치솟아오르고있다.

그러면 핵무기로 조선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비극을 강요하였을뿐아니라 오늘까지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과 공갈을 집요하게 추구해오고있는 미국의 범죄적책동에 대하여 력사적으로 까밝혀보자.

1945년 7월 미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원자탄시험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되여 지구상에는 그때까지 인류가 알지 못한 가장 파괴적인 대량살륙무기인 핵무기가 생겨나게 되였다. 그해 8월 미국이 일본에 원자탄을 투하함으로써 핵무기의 무서운 파괴력은 여실히 증명되였다.

이것이 사람들속에서 몸서리치는 핵공포증을 불러일으키자 미국은 페재를 불렀다. 핵무기야말로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의 《꿈》을 실현해줄수 있는 《위력한 수단》이라고 망상했기때문이다.

이때로부터 미국은 인류를 대상으로 끊임없는 핵위협을 가하면서 세계무대에서 강권과 전횡을 일삼아왔다. 특히 조선민족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은 인류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직접적이고 뿌리깊으며 집요한것이였다.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미국의 핵위협은 추상적인것이 아니라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체험이였다.

세계의 대다수 사람들은 아마 일본만을 미국으로부터 원자탄세례를 받은 유일한 나라로 알고있을것이다. 미제가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투하한 원자탄으로 하여 일제의 징용, 징병에 끌려갔던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억울한 핵피해를 당하였다는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못하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조선사람들가운데는 아직까지도 1945년 미제가 끼친 핵피해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

언제인가 남조선의 《원폭피해자협회》는 조선인원자탄피해자 총수가 약 7만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약 4만명에 달하였다고 추정하였다. 일본에서 활동하고있는 시민단체인 《나가사끼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은 세밀한 조사를 진행하여 나가사끼에서 원자탄피해를 입은 조선사람은 모두 2만 1 384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만 278명으로 추정된다는 조사자료를 발표하였는데 이 내용은 일본도서 《조선인피폭자—나가사끼로부터의 증언》에도 수록되여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미제에 의하여 최초의 핵참화를 입은 직접적피해자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감행한 미국의 원자탄공갈은 그야말로 극치를 이루었다.

1950년 11월 30일 미국대통령 트루맨이 조선전선에서의 원자탄사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데 이어 같은 날 미전략항공대에 《극동에 즉시적인 원자탄투하를 위해 폭격기들을 날려보낼수 있도록 대기》할데 대한 지시가 하달되였다.

그해 12월 미극동군사령관 맥아더는 《조선북부에 동해로부터 서해에 이르는 방사능복도지대를 형성할것이다. 그 지대안에서는 60년 혹은 120년동안 생명체가 소생하지 못할것이다.》고 뇌까리였다. 이때 인천앞바다에 정박하고있던 미항공모함에는 은밀히 핵무기가 배비되여있었으며 핵탄을 적재한 함재기들이 출격명령을 기다리고있었다.

1952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아이젠하워는 《교섭보다 행동이 제일》이라고 떠벌였으며 다음해에는 조선에서 《원자탄사용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우리가 조선에서 보다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가자면 원자탄을 사용하여야 할것이다.》는 폭언도 늘어놓았다.

미국의 원자탄공갈로 하여 전쟁기간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생리별을 당하게 되였다. 이렇게 되여 생겨난 수백만에 달하는 《흩어진 가족》이 오늘도 조선반도의 북과 남에 갈라져 살고있다.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이 가슴아픈 민족적비극을 초래한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이였다.

우리 인민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은 전후에도 계속되였다.

전후에 우리 인민은 전쟁으로 파괴된 모든것을 하루빨리 복구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었다. 그러나 조선전쟁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한 미국은 교훈을 찾을 대신 새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책동에 광분하였다. 특히 미국의 정객들은 조선전쟁에서 《원자탄을 사용하지 못한것이 한》이라고 하면서 핵전쟁준비에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1954년 1월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는 《대량보복계획》을 공개한 미국은 1957년 7월 남조선강점 미군이 핵무장화에 착수한다는것을 선언하였다. 그후 미국은 남조선에 있는 미군사단을 전술핵무장을 갖춘 《펜토믹》원자사단으로 개편하고 《오네스트존》핵미싸일대대, 280㎜원자포대대를 끌어들였다. 미공군 588전술유도탄대대를 끌어들이는것과 함께 미군 4유도탄사령부도 창설하였다.

남조선을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변시키고 이에 토대하여 동북아시아지역은 물론 전세계를 제패하자는것이 미국의 검은 속심이였다.

전후 조선반도에서 감행된 미국의 로골적인 핵무력증강책동은 우리 공화국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였다. 하여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졸라맨 허리띠를 늦추지 못하고 그후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같이 밀고나가야 하는 병진이라는 전인미답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안철권

ㄱ-610108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